

양희은·강석우의

# 여성시대

2010 + 11 + Novem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Contents

양희은 · 강석우의 여성시대

2010\_11\_November

interview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은총아빠 철인3종 경기 도전
	052	여성시대가 가족을 찾아서 행주대교 남단의 아름다운 김밥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태도를 바꾸면 사람과 기업이 바뀐다
story	008	이달의 편지 남자도 밥 짓는 것은 배워라 외
	065	가족사랑수기 열 식구의 좌충우돌 생활이야기 외
	080	부부클리닉 당신 생각은 어때?
	084	자구는 여성이 지킨다 전자제품의 여행
	088	우리나라 구석구석 가을 단풍과 약수를 찾아 떠나는 강원도 홍천 · 인제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순천, 그곳에 가보시래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아들의 애인
	096	하PD의 편지를 읽다가 삶의 풍경을 바꿔주는
098	여인열전 연산군 부인 신씨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안해란, 하정민 방송\_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400호 표지\_이수동 여성시대, 월간지, 비매품, 2010년 11월호 발행\_2010년 11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김재철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관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 은총아빠 철인3종 경기 도전!

전북 군산시 박지훈 씨를 찾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다. 그런데 그 자식이 아프다. 희귀난치병을 하나도 아닌 여섯 가지나 가지고 태어난 아이 은총이. 이런 은총이를 바라보는 아빠 박지훈 씨의 마음은 늘 아프다.

생후 3개월에 시작한 지독한 경기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아이는 1년도 못 살 거라는 판정을 받았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뇌가 서서히 굳어가고, 녹내장으로 눈도 보이지 않는다.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순례를 하던 날들은 늘 캄캄한 터널 속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은 병원에서 오른쪽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17시간의 수술시간, 수술실 밖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만 조릴 뿐이었다.

뇌수술 후 기적처럼 걸음을 걷게 됐다. 왼팔·왼다리는 여전히 마비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걷는 게 어딘가 싶다. 거저싸만한 희망이 생겨났다. 여섯 살에 걷기 시작한 은총이는 올해 여덟 살, 내년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다.

은총이의 일곱 번의 대수술과 2년 동안의 병원생활 끝에 은총아빠는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은총이만은 잃을 수가 없었다.

아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은총이 아빠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 성취 기관인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이 주최한 철인3종 경기에 도전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은총이와 함께. 아이의 병을 알리고 희



사진제공 © 박경일

경기를 끝내고  
부자는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은총이를 위해  
그리고 은총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달릴 것을.



망을 찾고 싶었다. 은총이가 탄 보트를 끈에 연결해 허리춤에 묶은 채 수영을 하고, 자전거 뒤에 트레일러를 만들어 은총이와 자전거를 타고, 휠체어를 밀며 마라톤을 했다. 경기를 끝내고 부자는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은총이를 위해 그리고 은총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달릴 것을.

내년 여름에 열리는 제주도 철인3종 경기를 완주하고 나아가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게 은총아빠의 새로운 꿈이 됐다. 언제나 은총이와 함께 달릴 것이다. 밀고, 끌고, 심장이 터질 듯 숨이 차올라도 아들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멈추지 않으리라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

- letter 01 남자도 밥 짓는 것은 배워라
- letter 02 만 원의 행복
- letter 03 사랑만 하고 살자
- letter 04 눈물의 반지
- letter 05 남편이 고맙다
- letter 06 낚시사랑
- letter 07 고마운 내 사람
- letter 08 자판이 사기
- letter 09 삼 형제의 우애
- letter 10 뒤늦은 깨달음
- letter 11 육아나, 바둑이나
- letter 12 아들이, 엄마가 미안해!
- letter 13 파마하고 싶다

— 일러스트 박지현

남자도 밥 짓는 것은 배워라

저는 삼 형제의 맏며느리입니다. 얼마 전, 제사 때문에 온가족이 모였습니다. “준비는 다 했다. 그러니 몸만 오면 되겠다”는 어머니의 고마운 전화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매번 이렇게 며느리들의 수고를 덜어주십니다. 삼 형제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막내까지 다 모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부엌으로 직행하고, 남자들은 이 방 저 방 찾아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저희 시댁은 보수적인 아버님 때문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아버님은 중갓집의 귀한 장손으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왕자님처럼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해서도 항상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구분지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말이 있듯 아들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부엌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살다보니, 또 각각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도와주는 척하지만 본가에만 내려오면 땡굴땡굴하며 온갖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도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 하고 온갖 심부름을 다해 줍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도와주는 걸 바라지도 않게 됐습니다. 올해 역시 그러려니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너희들 모두 이리 와 봐라” 하셨습니다.

며느리들만 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셋이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님은 아들들에게 “너그들도 다 들어오나라” 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을 나란히 앉혀 놓고 아버님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그들(아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얼마 전에 너그엄니가 많이 아팠다. 몸살이 나서 꿈쩍 못 하고 누워 있었다. 그때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는데 환장 허것드라. 내가 해주고 싶어도 밥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할 수가 없드라. 그래서 누워있는 너그엄마한테 하나하나 물어 보고 왔다 갔다 했더니 엄마가 속 터진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밥을 했다. 그래서 멀쩡한 나는 구경만 하고, 아픈 너그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 일흔세 살이나 먹도록 밥도 못 해서 아픈 너그엄마를 부러먹었다.”

아버님은 잠시 우리를 한번 둘러보고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밥하는 것도 배우고, 국 끓이는 것, 설거지하는 것, 빨래하는 것도 배웠다. 둘이 살다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불편없이 병수발 들어주고 밥은 해먹일 수 있어야 되것드라. 너그들은 집에서 설거지 몇 번씩이나 허냐? 밥은 할 줄 아냐?”

세 아들들은 손가락으로 콧을 만큼의 설거지 횟수를 말하지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긴 밥은 삼 형제 모두 한 번도 안 해봤기에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남자들도 밥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다. 안사람이 집을 비워도 걱정 안 하고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것드라 이 말이다. 나중에 내 나이 돼서 후회하지 말고 너그

들은 젊으니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부터 너그들도 부엌에 가서 같이 음식 준비하는 걸 배우면서 도와라.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설거지하고 청소는 너그들이 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듣고 우리 며느리들은 귀를 의심했고, 입에서는 킁킁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면 아들들은 “아버지, 나이 오십에 제삿날 설거지를 해요?” 하고 반항 아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그럼 일흔셋인 내가 하리?” 하자 아들들은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말씀이 곧 법인 시대 부엌이 북적거렸습니다. 무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아들들을 보시고 어머니가 “구적장승처럼 서 있지 말고 파도 다듬고, 산짐도 쫓고 해라” 하며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너그아버지가 밥을 못 해준 게 그리 미안했는갑드라.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헛살았다고 하시더라. 그날부터 부엌일을 배우고, 세탁기도 돌리고 하신단다. 그 뒤로 내가 편해졌다. 너그들도 아버지처럼 나중에 미안해하며 후회 안 할라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잘 배워라. 나중에 둘이 남으면 멀리 있는 자식 다 필요 없다. 그래도 옆에 있는 영감이 물 떠다주고 밥숟가락 들게 해주더라. 어찌됐든 부부밖에 없더라.”

그렇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던 아버님이 이번에 어머니 아프실 때 밥 못해드린 게 너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번 제사에는 남편들 심부름을 안 한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또 남편들이 서툴지만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줘서 너무 편했습니다.

두 분 부모님 뵈고 돌아오면서 “결국 부부밖에 없더라”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

만  
원  
의  
행  
복

**일** 곱 살과 14개월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동안 둘째를 낳고 키우느라 제대로 된 외출조차 못 했어요. 외출을 해도 둘째는 업고 큰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곳만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2년 만에 아이들을 두고 저 혼자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박효신 콘서트에 동생이랑 가기로 했거든요. 아이들은 남편들한테 맡기기로 했고요.

콘서트 비용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힘들게 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알뜰하게 살림한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전 마치 열일곱 살된 소녀처럼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저에게 일곱 살 딸아이가 물었죠.

“엄마, 박효신 아저씨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응, 엄마는 너무 너무 너무 좋아.”

“엄마, 가슴이 쿵쿵쿵 뛰어? 엄마 남자친구가 박효신 아저씨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 내 웃으며 딸아이를 꼭 안아 주었어요.

드디어 시간이 되어 동생을 만나서 콘서트장에 가려고 전철역 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하는 외출이 정말 오랜만이고, 더구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간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안 들어주셔도 괜찮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지갑이랑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 좀 빌려 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시면 돈은 꼭 송금해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닙니까.

“저, 돈 별로 없어요.”

“차비 9,200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 분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서 돈 만 원을 꺼내 주었지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제 돈 1만 원을 꼭 쥔 채 미소를 지으며 반대편으로 걸어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저 돈 만 원이면 우리 딸 먹고 싶다는 초코 케이크를 사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은 며칠 전부터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딸애가 졸랐거든요.



또 아차 싶었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1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4,000원 하는 시금치 한 단이 너무 비싸 살까 말까 망설이며 들었다 놓았다 하는 저 같은 주부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는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아저씨,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저씨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주세요” 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당황해 하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사용정지가 돼 번호가 없어요” 하더군요.

“정지를 시켜도 받을 수는 있어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네, 016으로 시작되는데요. 정지를 시켜서 통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당황해 말까지 더듬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아저씨! 그런 게 어딤어요. 아저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제 돈 만 원 다시 주세요.”

“네?”

저는 손바닥을 쑥 내밀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1만 원을 다시 주면서 상냥하게 말했던 직전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뭐야? 줬다 뺏었다, 지금 장난해?” 그러지 뭐예요. 저는 제 돈 1만 원을 손에 꼭 쥐고 너무 무서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다행히 금방 동생을 만나 안심이 되었지만 어찌나 가슴이 쿵쾅거리던지요. 그래도 제 손에 꼭 쥐 1만 원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냐?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참 용감하죠? 그 상황에서 다시 돈 1만 원을 찾아오다니. 이게 용감한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이라고요. ☆

‘시’ 어머니 심술은 하루 세 번씩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옛말이 있다. 결혼해서 일가를 이룬 두 아들이 아들딸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을 보면 예쁘고 고맙지만 어쩌다, 정말 어쩌다 한 번씩은 공연히 심심이 날 때가 있다.

얼마 전, 휴가를 받아 집에 내려온 작은아들이 처가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제 마누라 신발을 딱 신기 좋게 대령하는 게 아닌가. 제 아버지는 나한테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짓을 말이다.

“녀석들이 말이야, 애처가의 경지를 넘어 완전히 경처가(驚妻家)의 경지에 들어섰다니까. 어느 녀석이 더 할지 저울에 달아봐도 구별도 안 될 거야. 당신한테는 없는 유전인자가 어디서 붙어 들어왔는지. 돌연변이들이야, 돌연변이.”

나는 공연히 부아가 치밀어 가만히 있는 남편을 흘려보면서 시비를 걸어보았다.

“당신은 아들 대에 와서 한을 풀었구먼. 소원 성취했네 그러. 축하해.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심술이 똑 똑 떨어지네...”

남편은 빙글빙글 웃으며 오히려 날 놀리는 게 아닌가.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해가니 요즘 애들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든다.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느라 매일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남편은 일요일도





휴일도 없이 사무실에 출근했다. 병이 나 보채는 애를 밤새도록 업고 날을 썰 때도 남편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잘도 잤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좀 쉬어야 할 텐데, 손자·손녀들이 어찌나 제 애비한테 달라붙어 치대는지 딱해 보일 때도 있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유원지·미술관·철새도래지 등 안 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 하나같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고 한다.

못난 녀석들! ‘우리 며느리들은 무슨 복이 저리 많을까’ 생각하다가 픽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옛날 우리 시누이들이 나에게도 했던 말이니까 말이다.

남편 생일이라고 두 아들 가족이 집에 내려왔다. 애들이 만화영화에 푹 빠져 모처럼 어른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큰며느리가 애고를 섞어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데, 아빤은 도무지 제 말을 듣질 않아요.”

“저도요.”

작은며느리도 맞장구를 친다. 두 며느리 복창에 깜짝 놀란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런 남편에게 불평을 하다니. 나 원 참.’ 내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니 남편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 소리야.”

이 일로 나는 지난 일을 되짚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구나. 그렇다면 재고, 달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 또한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완전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울고, 웃고 미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마치 철학자라도 된 듯이 으쓱해졌다가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사랑은 스러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해도 사랑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사랑만 하고 살자! ☆



**결**혼 14년차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사내아이 둘을 둔 소위 ‘깡패엄마’입니다. ‘깡패엄마’란 말은 엄마가 깡패가 되지 않으면 아들 둘을 키우기가 힘들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겠죠. 저 또한 다른 ‘깡패엄마들’처럼 아들 둘을 키우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매도 들면서 하루하루 전쟁을 치룹니다.

그렇게 제 속만 썩이는 아들에게 며칠 전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 생일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엄마, 생신선물로 편지 써서 드리면 되죠?”

“아니, 편지는 기본이고, 이젠 엄마한테도 눈에 보이는 선물로 해줘.”

“그럼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드려야지.”

작은너석이 그러더군요.

“아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럼 금반지라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난데없이 작은아들이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통장을 보자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몇 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요.

작은아들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일, 십, 백... 하고 세더니 “엄마, 130만 원이네요” 하고는 제 손을 잡고 반지를 사러 나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요즘 금값은 말 그대로 ‘금값’ 아닙니까.

“영주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열심히 저축해서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어.”

“엄마가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엄마를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쓰려고 하는데 왜 못 쓰게 하세요.”

아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왕방울만 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이 한 고집 하는데다, 또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임을 알기에 못 이기는 체하고 아들을 따라나섰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귀금속 판매점이 있어서 가는 데는 힘이 들지 않았지만 저는 가는 내내 작은아들에게 거의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영주야, 오늘은 그냥 스타일만 보고 오자.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응.”

그렇게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코 묻은 아들의 돈을 쓰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반지 얼마예요?”

“어머님 안목 참 대단하시다, 48만 9,000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42만 원에 해드릴게요.”

“엄마! 예쁘다. 이걸로 해.”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저는 작은아들을 떼밀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부터였습니다. 거실에 드러눕더니 반지를 안 사 왔다고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한참을 달랬지만 10분 넘게 울어대니 나중에는 버럭 화가 치솟더라고요. 하지만 다 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알기에 저는 두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주가 그렇게 엄마반지를 해주고 싶었구나. 그런데 영주야, 영주 마



음은 엄마가 아는데 솔직히 영주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엄마반지는 못 사겠더라.”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반지 하나도 못 해줘요?”

그 말에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물밀듯 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3일 후 토요일에 반지를 하러 가자고 약속을 하고, 저는 이튿날 아들녀석과 갔던 가게에 들러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아들과 같이 오면 계약서를 아들이 쓰게 하고, 계약금도 아들이 치르게 해주라고 입을 맞추고는 제 돈으로 반지 값을 치렀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알지만 정말 죽어도 아들녀석 돈으로 반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3일 후, 짜인 각본대로 그곳에 갔습니다.

“꼬마 손님, 왜 오셨어요?”

“엄마선물 사려고요.”

“어머, 아들 참 효자구나. 부럽다. 자, 아들이 엄마를 사 드리는 것이니 계약서에 직접 이름을 쓰세요.”

‘최영주’라고 이름 석 자를 쓰고 계약금 1만 원을 주고 나오는데, 아들녀석의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엄마! 이런 아들 뒤서 좋죠?”

“응.”

“행복하죠?”

“그러엄.”

일주일 후에 반지가 나와서 아들녀석과 찾으러 갔는데, 어차피 내 돈으로 산 거라 사실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받아 아들녀석이 제 약지에 직접 끼워 주는데 이걸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구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반지를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고, 이렇게 감동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효자아들! 저, 아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

“나 처갓집 내려간다.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  
“갑자기 왜?”  
“침대 사드리러 가지.”

그리고 푹 끊긴 전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얼이 빠졌다. 갑자기 웬 침대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옛그제 술을 먹고 남편에게 술주정을 했던 게 어렵풋이 기억이 났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엄마 침대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돈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그렇게 사드리고 싶으면 할부로라도 하나 사드려” 하는 말을 듣고 술김에 통곡을 했나보다. 난 “할부로 사면 누가 어떻게 갚아? 돈은 땅 파서 나오나?” 짜증을 냈다.

오래 전부터 관절염으로 절뚝거리며 걷던 엄마는 얼마 전부터는 아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다. 밤중에 화장실 다니시기가 불편해서 늘 “침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혼잣말처럼 얘기를 하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 살 수 없고, 자식들 또한 근근이 사는 형편이라 누구에게 말 한 마디 꺼내 보지도 못하셨다.

다른 집들처럼 “자식들이 돈 모아 나 침대 하나만 사 달라”는 말도 못 하는 친정엄마를 보고 내내 가슴이 아팠다. 동생들이나 나나 사는 형편이 편하기에 얼마씩 걷어 침대 하나 사 드리자는 말을 못 꺼냈다. 또 혼자 사드리자니 맞벌이지만 두 아이 때문에 늘 쪼들



리는 살림에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는데, 남편도 가슴이 아팠나 보다.

지팡이를 짚은 친정엄마와 여러 침대가게를 돌아 엄마 마음에 든 침대를 사드리고 집에 들어 온 남편이 그저 고맙다.

“진작 사드릴 걸 그랬어.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시더라. 침대는 모레 배달해 준대.”

“돈도 없는데 갑자기 웬 침대야. 우리는 이불이 없어서 구닥다리 이불 덮고 자는데...”

“우리 마누라, 어머니 침대 안 사드리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술만 먹으면 ‘우리 엄마 침대도 하나 못 사드리고...’ 하면서 울 텐데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 이번 달부터 월급이 조금 오를 거야. 연금보험 하나 들려고 했는데, 침대 할부 다 끝나면 그때 넣지 뭐. 이불이 없어서 잠 못 자냐? 졸려서 눕기만 하면 자는 걸.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도 침대 새로 사면 되지. 당신 아직 모르나 본데, 난 처갓집 식구 중에서 장모님이 제일 좋아.”

그렇다. 남편은 참 엄마를 좋아한다. 어쩌다 가족끼리 저녁을 먹을 때면 엄마 옆에 자리를 잡아 고기도 구워 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 드린다.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는 엄마도 남편과 함께라면 맥주 한 잔은 마셨으니까.

엄마는 우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식사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셨다. 남편 좋아하는 해물탕을 해주시며 항상 잘 익은 낙지를 잘라 남편에게 덜어 주고는 했다.

남편은 항상 엄마 주머니에 공식적인 용돈 말고, 별도로 용돈을 챙겨주었다.

“어머니, 장에 가시면 파마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얼마인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 보면 엄마는 “김 서방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주지도 말라고 했다”며 웃으시고 금액에 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무셨다.

결혼 19년. 내 엄마가 이제는 남편에게도 엄마가 되는 것 같다. 시어머니에게 하듯 획 내려가 엄마 맘에 드는 침대를 사준 남편이 참 고맙다.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

머쓱해진 내가 “카드 값 내려면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매야 돼. 당분간은 아무도 반찬 투정하지 마” 했다.

남편이 ‘히’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좀 미안했다. ☆

남시사랑

**제** 남편은 여섯 살, 열 살 때 부모님을 잃고 모진 고생을 하며 정말 억척같이 일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입는 것, 쓰는 것, 즐기는 것 모두 돌아보지 않고 청춘을 보낸 사람이지요.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시절 97만 원을 저금하던 사람이었으니 그저 일하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도 남편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몸에 밴 탓인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청소며 작은 텃밭에 채소 가꾸기며 항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작년 8월 아들의 권유로 낚시를 접하게 되었지요. 한 가지 일에 빠지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인지라 낚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이 지리적으로 어종이 풍부한 맑고 깨끗한 바다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엔 제격인 점도 있지요.

4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과 취미를 갖게 된 남편을 식구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낚시를 처음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낚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와도 낚시를 갔죠. 새벽 4시에 기상해 장사 시작 전인 9시 30분까지 낚시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 낚시를 하고 한 달 만인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며 “피떡 나와 보라. 병원에 가야겠다”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나와 보니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손을 옷으로 싸맨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에 젖은 채로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 병원 응급실로 함께 가보니 눈썹 위가 찢어지고 손가락 한 마디가 크게 다쳤지 뭐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삼각형 모양의 큰 시멘트 덩어리, 일명 ‘삼발이’라 불리는 방파제 블록(테트라 포트) 사이로 미끄러지며 거꾸로 떨어졌답니다.



처음 하는 낚시라 서툴기도 했지만 검소한 남편이 낚시용 갯바위 장화를 사지 않은 탓에 운동화가 미끄러지면서 당한 사고였지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의 낚시사랑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쭉 이어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낚시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낚시바늘에 줄을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지요. 열성도 이런 열성이 없을 겁니다.

남편이 낚시터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밤새 낚시하다가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고기 잡던 미끼나 밑밥을 그대로 방치해 냄새가 나는 곳을 물로 씻어내고, 봉투도 뜯지 않고 버려둔 찌·낚시줄·바늘 등 잡다한 낚시도구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이 습관이 된 남편은 낚시도구도 담뱃값을 아끼고, 주차비를 아껴서 제일 싸게 파는 곳을 수소문해 사기 때문에 낚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남편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작은 횃집에서 팔기 위해 직접 낚시를 오신 분, 젊은 시절 술과 유흥으로 방탕하다 낚시로 마음을 잡아 아들의 낚시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분, 밤샘 낚시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분 등 사연도 제각각인 분들을 만나 낚시에 얽힌 인생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새로 산 멋진 오토바이를 짐 나르는 오토바이처럼 낚시 도구를 신기 위해 볼품없이 개조하는 엉뚱한 일도 벌이지만 남편은 처음으로 만끽하는 자신만의 여가시간이 너무도 행복한 듯합니다.

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그래서 삶에 활력을 얻는 남편을 보면 저도 즐거워집니다. 모쪼록 안전에 주의하고 바다의 청결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낚시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파이팅!’ ☆

2005년 7월, 저는 갯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기만 했던 제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독한 항암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1년을 고생하며 전 제 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암제를 먹고,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저는 일을 한 번도 쉬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내가 아픈 것도 잊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수업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시도 때도 없이 근육경련이 일어나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수록 저는 더 아무렇지도 않게, 더 밝고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웃고 즐겼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내다보니 어느새 백혈병은 제 삶



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뒤섞여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혼기가 다 차서 주변에서 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게 남자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소개시켜준 선생님의 입장도 있으니 가서 밥만 먹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 소개팅이 제 인생에 큰 반전을 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말이죠.

2008년 11월이 다 끝나갈 무렵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작은 키에 선한 인상의 그는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죠. 저보다 다섯 살 위였던 그는 오빠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며 남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가 싫지 않았기에 받아들였고, 그 후 우리는 매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지낼수록 저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저 또한 그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는 제게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몇날 며칠을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그는 제가 백혈병 환자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백혈병 환자. 평생 항암제를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매일 먹는 항암제 때문에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제 처지를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 더 이상은 그와의 만남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에 제 병에 대해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 밖으로 차마 말을 못 꺼내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지?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만 있을 때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하려는 그 말, 오빠가 먼저 해도 돼? 너 아픈 거 알고 있었어. 아픈 거 알고 처음부터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오빠 괜찮아. 너만 좋다면 난 괜찮으니깐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그에게 “그 사실을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소개팅 나올 때도 그 사실을 알고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끝내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안 사실이지만 소개팅을 주선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친구가 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친구에게 백혈병 투병중인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의 만남을 지속했고, 그 이후로 저와 그는 더욱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생각하고 욕심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그만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잘 지내.”

그러자 그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에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향 집에 내려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고, 아픈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는 힘든 상황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부

족한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정말 이해심이 많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꿈에 그리던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지요.

그는 정말 1등 남편감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저보다 더 많이 신경써 주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이 가서 힘이 돼 주었으며, 집안일 역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처음 그를 만나기 전에는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남자만 나타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그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와 결혼을 하니 그와 꼭 닮은 예쁜 아기를 낳고 싶어졌습니다.

아기 이야기를 하면 그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아기 없이 우리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자기는 아기 없어도 되니까 제 건강만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병원에 임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가능한 하겠지만 제가 너무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매일 먹어야 하는 항암제 때문에 아기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항암제를 끊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제가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굳이 임신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백혈구 수치가 제로로 떨어져 약을 끊고 6개월 이상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의 협의 없이, 저 또한 계획 없이 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다른 엄마들 같으면 너무 기쁘고 축복 받을 일이었을 테지만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계속 항암제를 먹어왔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독한 약들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신 4주 전에 복용한 약은 아기에게 커다란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임신을 알게 된 건 임신 4주째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먹고 있던 약은 항암제를 포함해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족들을 설득했고, 그와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벅차고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항암제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제 병을 치료하던 혈액내과 교수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상태가 그동안 먹은 항암제로 백혈구 수치가 낮아졌으니 일단 약을 끊고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째입니다. 아기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지금은 뱃속에서 태동도 제법 느끼고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낳을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말이지요.

옆에서 저를 항상 지켜주는 그가 있기에 저도 아기도 건강하게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래오래 항상 내 옆에만 있어. 나랑 결혼 해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해.”

그의 말에 전 눈물만 흐릅니다. 그는 제 마음을 알까요? 아파서 미안한 제 마음을, 병이 있는 저를 안고 평생 함께하기를 약속해주어서 너무도 고마워하는 제 마음을,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너무 부족한 제 심정을 말입니다.

백혈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 이렇게 착한 신랑이, 또 그런 신랑 덕분에 예쁜 아기가 저에게 와주었다니...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

지난해 5월 자동차를 샀습니다. 가끔 3교대를 하는 딸아이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때, 늘 오던 시간에 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 잠도 못 자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로 출퇴근을 시켜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몸이 조금 좋지 않다가에 퇴근시간에 맞춰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택시회사가 있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5년 정도 무사고 경력인이라 저는 어느 때처럼 골목으로 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딸아이가 “엄마, 사람 치었어! 차 세워!”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딸과 같이 내렸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왼쪽 정강이 부분을 만지면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지팡이 아랫부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리 좀 볼까요?” 하니 할아버지는 “아파! 본다고 알겠어?” 했습니다. 딸아이는 “저, 간호사예요. 지금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조금만 보여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한참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딸아이가 저에게만 살짝 말하더군요.

“상처는 하나도 없으신데? 그래도 많이 놀라셨을







거야.”

그러면서 딸이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난데없이 “이 지팡이 되게 비싼 거예요. 나는 여기 강동구에 사는데, 우리 딸이 신촌에서 해준 거예요. 13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 키와 팔 길이에 맞춰서 한 거라 다른 곳에서는 구하지도 못하고 아무 거나 사면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휘어져서 다시 사용도 못 하니 돈만 줘요” 했습니다.

일단 차를 주차장에 대고 왔더니 할아버지는 계속 “우리 딸이 신촌 앞에서 맞춰다 준 지팡이고 이 동네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만 줘요” 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병원에 가서 일단 진료부터 받으시고 병원 앞에 있는 의료기상사에 같이 가보시죠?” 하니,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는 안 가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도 어디 가는 길이었으니까 8만 원이나 줘요” 하기에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딸이 갑자기 뉴스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노인들이 골목길에서 살살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일부러 지팡이를

넣어 휘게 하는 사기수법이 방송되고 있지 뭐니까. 저와 제 딸이 고스란히 당한 바로 그 내용이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만약 지팡이 값을 그 자리에서 물어줬다 하더라도 꼭 지불보증서 같은 것을 받아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만 주고 말았으니 뺑소니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더군요. 지금까지 “뺑소니니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는 없어서 그냥 8만 원에 끝난 사건으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요 며칠 전,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어느 할머니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하고는 “지팡이가 많이 망가졌네요” 하고 말씀드리니 작년 그 할아버지와 부부인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따님’이 ‘아드님’으로 바뀌고, 자식 사는 곳이 ‘신촌’에서 ‘저희 동네’로 바뀐 것 말고는 똑같더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우선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병원에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지팡이가 없으면 걸음을 걸을 수 없으니 그냥 지팡이 값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에게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경찰은 무슨 경찰.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노인이라 괜히 이것저것 검사만 해 돈만 더 들어요. 그냥 지팡이 값 10만 원만 주면 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할게요, 지금 병원 안 가신다고 하고는 나중에 편찮으시면 어쩌려고요” 했더니, 할머니가 대뜸 소리치면서 “안 다쳤다니가 자꾸 경찰을 부른대! 지팡이 값 안 줘도 돼요”라면서 그냥 황급히 가시더라고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뉴스에도 난 사건이 사람들 기억에 잊힐 만하니까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되네요.

참 씁쓸했어요. 사람을 자동차로 치었다는 불안감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해결하자’고 마음먹었다간 더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

삼 형제의 우애

나는 아침을 먹고 깜박 잠이 들었나 보다.  
“여보, 아주머님이 전화하셨는데?” 하며 아내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30분이나 흘렀다.

“예, 형.”

“너는 일요일에 같이 낚시가가고 하고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제야 생각이 났다. 지난 추석에 형네 집에 갔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일요일이면 망둥이를 잡으러 간다는 형에게 같이 가자고 했었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집에 있는 것보다 ‘낚시 취미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심심하지 않겠구나!’란 생각도 있었고, 또 형과 한 번쯤 낚시를 같이 가고 싶었다.

큰녀석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고, 아내는 집안 일이 많으며 고개를 흔든다. 낚시 얘기에 좋다고 튀어 오르는 작은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막내에게 전화를 하니 집에 있다. “너도 가자” 해서 다섯 남자가 낚시에 나섰다. 45세인 형, 40세인 나, 35세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 그리고 조카, 작은아이 이렇게 다섯 명이다.

어머니는 생전에 형제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내가 형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괜찮았

고, 또 동생이 가끔 나에게 술주정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땐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네 동생이니 어쩔겨, 형인 네가 참아야지” 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차피 내 동생이니 참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조금씩 서먹해졌다. 이제 형제가 싸우면 안 볼 수도 있다. 누가 간섭하지도 않으니 형이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보면 되고, 명절날에도 가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다.

처음에는 그게 참 어색했다.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우리 형제들 중심에는 형제애를 중요시하는 어머니가 계셨구나!’ 하고 깨달으니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마음이 형과 동생에게도 있었는지 우리 삼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로에게 조심스러워졌다. 모두 가까이에 살아 만나는 횡수는 많았지만, 술만 먹으면 서럽다고 울어대던 막내도 술이 좀 취했다 싶으면 “먼저 가요” 하고는 혼자 집으로 가버린다.

형도 예전과 다르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의논하려고 하고, 난 “그냥 형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만다.

어쨌든 영종도가 물이 좋다고 해 그곳으로 낚시를 갔다.

“넌 낚시대도 없으면서 낚시 간다고 하나?”

“형은 낚시대 많구면, 나 하나만 주면 되지. 누가 그냥 달라고 했나? 빌려달라는 거지.”

낚시대 부러뜨리면 큰일 난다는 듯 형은 낚시대 하나를 빌려 준다.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낚시대를 바라만 봐도 참 좋다. 옆에서 “망둥이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구시렁대는 동생이 있고, 또 “어떤 촌놈이 처음 낚시 온 걸 망둥이가 알았나? 도대체 보이질 않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형이 있으니 좋다. 컵라면 먹으며 “밥이 있었으면 딱 좋겠다”고 웃고 떠드는 두 아이들이 있어서 좋다. 가을별도 참 좋다.





저녁밥은 형네 집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저녁밥을 안 해서 좋은지 아나가 벌써 와서 고기 판을 벌여 놔다.

“삼 형제가 낚시 가니 보기가 좋네. 다음에도 또 가서 이번에는 저녁도 먹고 오면 더 좋겠다.”

형수님이 한마디 하니 형이 괜한 심통을 부리며 “배고파. 얼른 밥이나 줘” 해서 모두 웃었다.

형제라는 게 누구 한 사람 잘할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작은아이는 피곤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을 자고, 아이 머리맡에는 일기장이 펼쳐진 채 놓여 있다.

‘나는 아빠랑 큰아빠랑 경수형이랑 삼촌이랑 낚시하러 갔다. 자동차를 타고 1시간이 지나서 도착을 했다. 거기서 하다가 파도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갔다. 삼촌은 물고기 하나, 큰아빠도 물고기 하나, 아빠는 빵 개, 나는 작은 게 1개와 망둥이 1개. 경수형은 작은 게 이렇게 잡았다.’ ☆

저는 간호사입니다. 아이 셋을 낳고 아이들 키우는 데만 전력을 다해 생활하던 저에게 몇 달 전 한 선배에게서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 병원 문을 닫게 생겼으며 보름만 근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승낙을 했고, 한 달여 동안 재취업 병원생활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출근한 첫날, 저는 병동 회진 시작부터 울며 뛰쳐나와 한 시간가량 병실 문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의 미래, 부모님의 미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이렇게 힘드신지 몰라서, 그동안 많이 마음 쓰드리지 못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늙어버리게 될 지 정말 몰라서 죄송하다’고 마음속으로 사죄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92세 치매 할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영수야! 동생들하고 싸우지 말고 의종계 지내라. 그러면 나는 다 된다. 나는 다 괜찮다. 어미하고도 싸우지 말고, 그러면 나는 된다” 하며 저의 두 손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긴 이후 거취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고, 큰 아드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아마도 그 당사가 할머니 삶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였나 봅니다.

86세 치매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낮에 침대에 앉아 잠깐씩 조는 게 수면의 전부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저 할망구 때문에 우리 다 못 잤어” 하는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들의 책망이 쏟아집니다.

그 분들의 책망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할머니. 다가가 손을 잡는 저에게 “저는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86세 함박꽃 같이 고운 중풍 할머니. 두 다리에 힘이 부족하실 뿐 정신은 온전하신 그 할머니는 언제나 저희에게 “인사해줘서 고마워. 손 잡아줘서 고마워”라며 환한 얼굴로 웃어주십니다.

90세의 중풍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퇴근 시간에 들어서 집안 대소사에 대해 의논을 드리면 잘한 일에는 칭찬 한 마디 없고 잘못된 일에는 온전하지 않은 팔로 때리기까지 하십니다.

96세 치매 할머니는 저녁시간이 되면,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밥 먹을 때 다 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오지도 않고...”  
하십니다. 너무 보고 싶어도 오지 못할 엄마를 찾아 타령 섞인 울음을 우십니다.

한 달간의 요양병원 생활, 힘은 들었지만 너무 늦기 전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모님과과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2남 3녀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무척 엄하셨고, 자식들에게 기대가 크셨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기대한 결과에 못 미치는 경우, 아버지는 미흡한 우리 형제·자매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 원망을 모두 돌리셨

다는 겁니다.

간혹 음주 상태에서 폭언을 했고, 물건 등을 던져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나 교류가 거의 없고 혹여 함께 자리를 하게 돼도 성장한 남동생은 좌불안석, 방안에 아버지와 같이 있기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골 친정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엄마 바꿔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생활 중 느낀 ‘내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진실이 아버지에게 대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병원 근무가 끝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끊고 말았을 텐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말했습시다.

“아빠, 초등학교 시절 아빠가 자전거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시곤 했는데 그 울퉁불퉁한 신작로 길에서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빠 허리를 꼭 잡고 탔던 기억이 자주 나요.”

한참 후에 아빠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태우고 학교 데려다 줄 때, 딸 예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소리에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전화를 끊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많이 우셨겠죠. 그 후론 아버지와 통화하기 위해서라도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나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엄마!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 우리 때문에 살았지? 엄마 인생에 우리가 보석이지? 엄마는 우리 인생의 보석이야.” ☆

육아나,  
바둑이나

저는 여섯 살, 한 살짜리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째는 한 살이 아니라 70일 된 아기죠. 저희 부부는 맛별이기 때문에 첫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아에 대한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첫째아이는 5개월째부터 아내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길에 찾아오면서 길렀고, 둘째아이는 아내가 산후휴가를 3개월밖에 못 받는 바람에 5개월까지도 못 키우고, 결국 아침에 처가 장모님께 맡겼다가 퇴근길에 찾아오는 신세랍니다.

그러다보니 퇴근하는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꼴찌 하원’이라는 불명예를 아이에게 지워주지 않으려고 ‘6시 땡’ 하면 1등으로 퇴근해서 첫째아이를 픽업합니다.

둘째를 업고 계실 장모님 생각에 아내는 또 죽도록 뛰어 처가에 가서 둘째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 우는 둘째아이 분유 먹이고, 첫째아이 밥 차려먹이는 생각만 해도 속 시끄러운 전쟁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요? 사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퇴근하고 오징어에 맥주 한 잔 혹은 곱창에 소주 한 잔 안 먹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매일 술 약속도 접고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물론 아내를 만족시



키기에는 ‘새발의 피’ 정도지만요.

그런데 바로 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바둑을 좋아하긴 했지만 시작하면서 ‘시간을 잘 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둑이라는 게 한 판 시작하면 20분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또 한 판을 지고 나면 오기가 생겨 한 판만 더해서 이기고 기분 좋게 끝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내가 “일찍 오면 둘째아이만 좀 픽업해줘”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 울리기는 했는데, 그만 제 이성과는 달리 제 손은 이미 ‘시작’을 클릭해버렸단 말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신나게 바둑에 심취해 있던 그 순간 “띠리리” 벨이 울리면서 아내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어디야? 집에 왔어?”

그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미안”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군요. 아내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문자로 ‘서운해. 바둑 한 판이 그렇게 중요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군요.

아내는 지친 몸으로 밥도 못하고, 첫째아이 숙제를 봐주면서 둘째아이를 안고 서서 우유를 먹고 있더군요. 정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내는 화가 나서 밥도 안 먹었어요. 밤이 되고 아이들이 잠들자 아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긴 대화를 했죠. 물론 격하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화해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힘들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아! 저도 진짜 돕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바둑을 푹 끊지는 못하겠지만 오락을 할 때는 꼭 알람을 맞춰야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너무 안 해서 아내가 답답해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노력해야겠어요.

‘자기야! 둘째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하고 일하러 나가는 당신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래.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며 살자는 자기의 말 나도 공감하지만 내 성격상 잘 안 되네. 앞으로는 알콩달콩 더 재미나게 살자. 사랑해!’ ☆

아이가 학교에 간 지 두어 시간이 족히 지났건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자꾸 눈물만 났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혈당조절 때문에 그렇게 마시고 싶어도 참고 지냈던 설탕이 든 커피를 진하게 타서 후루룩 마셔 버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슬픔이 좀 가시려나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걸 단숨에 마셔 목만 쓰리고 아플 뿐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바라만 봐도 눈물겨운 제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거든요.

제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잔병치레를 하더니 끝내 여린 몸 구석구석에 류머티즘이 점령해 버리기 시작하면서 저와 아이의 고통은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는 아이대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저대로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좋아졌고, 한동안 다니지 못했던 학교도 떠엄띄엄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는 동안 아이의 몸에 변형이 왔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더군요. 몸도 아픈데 마음의 병까지 얻은 녀석을 끌고 저는 심리상담소를 찾아다니며 아이의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팬클럽은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근교에 있는 소수의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켰습니다.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해 스스로를 가두고 부모와도 담을 쌓고 지내며 우울증을 앓던 아이는 그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다시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백일장에 나가 몇 번의 큰 상을 받으면서 점점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힘들게 하던 관절 변형과 통증도 조금씩 호전돼 갔고, 우리는 조금씩 병에 대해 여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다시 찾아온 집안의 평화 덕에 저는 그동안 꿈만 꾸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취월장했고, 저는 제대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만학도가 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에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치러야 하는 시련이 아직 더 있다는 듯 아이가 다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올 여름에는 갑상선 종양으로 폐와 가슴에 포도송이처럼 퍼진 지방종(lipoma)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법 담담한 모습으로 차디찬 수술대에 누워 아이는 “엄마, 걱정 마. 나 용감하니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수술 잘하고 나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 해. 약속” 하며 손가락까지 제 손에 걸고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태연한 척 바라보려 애를 썼지만 앙다문 제 입에선 신음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억지웃음을 짓고 저는 아이에게 어깃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넌 이 상황에서도 먹을 것 타령이나? 암튼 잘하고 나와.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 거니까. 알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눈을 바라보는 녀석의 눈에 끝내 눈물이 맺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올 여름 아이는 무려 4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고 지금 갑상선 호르몬제와 류머티즘 약을 복용하며 허위허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수술 이후 잦은 두통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며 종종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곤 했습니다.

그런 녀석을 데리고 병원과 학교를 쫓아다니다 보니 놀란 가슴에 병이 생긴 건지 저도 몹시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지병으로 갖고 있던 당뇨의 혈

당이 내려갈 줄 모르고 치솟는 바람에 요즘엔 저조차 힘에 겨워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엔 어찌나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던지요. 가위에 수없이 놀려 밤을 지새우고 눈을 뜬 오늘 아침, 아이는 제 방문 앞에 엉겨주춤 서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아파.”

그렇게 제게 하소연을 하는 녀석을 안아주고 달래주고 싶었지만 순간 버럭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서러운 생각에 보기만 해도 눈물겨운 그 녀석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은 어디가 아픈데? 응? 넌 대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젯밤 일찍 자라고 했지. 엄마도 아프니까, 널 챙겨주기 힘들니까,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니 몸은 니가 챙기라고 했지. 엄마는 로봇인 줄 알아? 엄마도 아프다고 했잖아. 나도 아프다고, 쉬고 싶다고.”

전 어미이면서 어미답지 못하게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학교를 가겠다고 나섰지만 전 다시 소릴 질렀습니다.

“너, 엄마 복장 터져 죽는 꼴 보려고 그래? 아침은 먹고 가야 할 것 아냐. 아침을 먹어야 약도 먹고, 약을 먹어야 아픈 데가 나올 거 아냐?”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터져버렸습니다. 다시 아이는 주춤주춤 식탁 앞에 앉아 기운 없이 된장찌개에 수저를 넣었지만 끝내 밥을 먹지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요.”

전 가슴이 아팠지만 또 화를 냈습니다.

“먹어. 죽어도 먹어. 아니 살아야 하니까 먹어. 먹으라고...”

끝내 돌아선 제 등은 한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대책 없이 펄펄 뛰는 이 못난 엄마를 달래려는 듯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전 눈

물을 흠치며 사과를 꺾었습니다.

“사과도 먹어. 먹어야 사니까.”

다시 우격다짐을 하는 제 앞에서 아이는 억지로 사과를 집어 먹었습니다. 험쵸한 아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는 눈가가 자꾸만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싸늘하고 뻣뻣한 손으로 자꾸만 제 눈가를 훔쳐 주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아깐 많이 아픈 것 같았는데 엄마 욱먹으니까 다 나은 것 같아. 역시 우리 엄마 욱이 나한테는 치료제라니까”하고 너스레를 떨며 자꾸 우는 제 눈가를 훔쳐 주는데 멍치 끝이 아리고 또 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저는 아프다는 녀석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제 설움에 겨워 화를 내고 소릴 지르고 아이를 다그쳐서 학교로 내몰았습니다.

‘여간해선 제 아픔을 숨기고 혼자 견디려 애쓰는 녀석인데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지도 않고 화부터 낸 제 자신이 한없이 밍습니다.

아이의 지금쯤 힘겨운 시간을 견디려고 진통제 두알 쬐은 먹었을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 속에서 혼자 고통을 견디며 가슴 아파 우는 엄마를 달래기 위해 힘든 시간을 애써 참고 하교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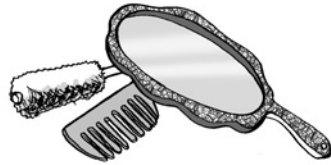
‘이럴 거면서 왜 그랬을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난 엄마데...’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내 ‘아픈 손가락’은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못난 어머니는 아침의 그 모진 행동을 기억조차 못하고 다시 돌아와 제 품에 안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모진 병을 얻은 지 어느새 10년이 다 되어 가건만 검게 변해가는 아이의 몸을 볼 때도, 아이의 아픈 모습을 볼 때도 이 못나고 겁 많은 어머니는 그 어떤 두려움에 자꾸만 화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들아! 진짜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 ☆



# 파마 하고싶다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최경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행주대교 남단의 아름다운 김밥



여성시대 가족 **곽원신 씨와 딸 현아 양**

10월의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낮다는 쌀쌀한 아침, 행주대교 남단에 승용차와 작은 현수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김밥 2,000원' 이라고 적혀 있고, 후덕해 보이는 중년남성이 서 있습니다. 저만큼에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자동차가 김밥현수막을 향해 다가오자, 얼른 김밥과 음료수를 들고 가는 분이 곽원신 씨입니다. 얼마 전 <여성시대> 앞으로 온 편지의 주인공, 대학생 곽현아 양의 아버지세요.

'아줌마·아저씨 혹시 잘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 행주대교에서 김밥을 파시는 아버지에 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이 나간 뒤로 전 효녀 소리 듣고 살았어요. 아빠께 저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후 저의 생활은 계속 상승세예요. 그때 아줌마께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 받아라' 하셨는데, 저는 그 학기에 바로 장학금을 받았습시다. 450만 원이 저의 학비인데 그때는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뒤 2학기 동안은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름방학에는 학교에서 뽑혀서 무료로 캐나다 어학연수도 다녀





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다 아줌마·아저씨 덕분인 것 같아요. 엄마·아빠가 매우 좋아하세요. 아빠를 위해 이번 겨울은 덜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겨울, 현아 양은 1학년생을 보내며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더랬습니다. 행주대교 남단, 차가 썩썩 달리는 그곳에서 김밥을 파는 아버지께 힘내시라는 편지였습니다.

딸의 응원을 받아서인지 곽원신 씨는 눈 가득 웃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이야기하자면 참 길다셨어요. 여주에서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동생도 있고,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다. 그 시절 모범생들이 가는 공고에 진학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지요.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열심히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있을 때,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자의 반 타의 반 일터를 나와 퇴직금으로 비디오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비디오가게가 사양길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손님이 줄고,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자 ‘김밥’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행에 곧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어떻게 팔아야 할지 두려웠지요. 그런데 아내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김밥 열개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행주대교 남단으로 갔습니다. 20분을 차 안에 앉아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썼을 아내의 심정을 생각하니, 담배만 피우고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섰지요. 미리 만들어 둔 현수막을 차에 걸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열개가 다 팔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가슴이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스무개, 그 다음 날은 마흔개…

곽원신 씨의 김밥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밥과 음료수가 합쳐서 2,000원, 그리고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됩니다. 대가가 단골손님입니다. 새벽 2시면, 남들 다 자는 그 시각에 곽원신 씨 부부는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새벽 여섯시면 다 만든 김밥을 들고 일터로 나가죠. 여름도 물론 힘들지만, 겨울은 더 힘듭니다.

어느 겨울, 현아 양은 아빠의 문자를 받았대요. ‘현아야, 아빠 너무 좋다.’ 현아 양은 밝게 답장을 보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대요. 사춘기 때 현아 양도 다른 아이들



●  
다음 날은 스무개, 그 다음 날은 마흔개…



처럼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디다. 부모님 직업도 싫었어요. 어느 날은 친구에게 그 얘길 했는데, 친구들 사이를 돌고 돌아 현아 양에게 들려온 말은, “너희 살기 힘들다며? 너네 김밥장사 한다며? 아무개가 네 아빠를...”였습디다. ‘내가 바보구나. 내가 한심하구나. 아빠는 나와 가족을 위해 차가 달리는 곳에서 김밥을 파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난 그걸 잊고 아빠를 부끄러워했구나.’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현아 양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 후 현아 양에게 아빠는 빌게이즈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고(현아 양은 컴퓨터전공이거든요), 마음이 제일 부자인 분이고, 장동건보다 잘 생긴 분입니다.

〈여성시대〉는 찬바람 부는 그 아침에 현아 양도 만났습디다. 웃음을 가득 머금은 눈이 아빠랑 똑 같은 현아 양은 키는 커도 얼굴은 귀여운 아가 같습니다. 아빠·엄마의 든든한 맏딸이면서, 두 동생의 언니면서 미



래를 빛나게 살아갈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현아아빠는 오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세요.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더 재미있고,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맑아지신답디다.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일을 한 후,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추워도 아침에 이불을 못 덮으셨대요.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니 마음 아파서요. 아이들 잘 키우고, 아버지와 형제들 잘 건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쉽지 않군요. 나중에는 시골에서 멍석 짜고, 새끼도 꼬고 농사도 짓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고향 아버님께 짬 좀 모아달라고 했어요. 아버님께 짬신 삼는 거 배우려고요. 이제는 그런 거 잊히고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창인 김항권 씨가 들렀습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여전히 친합니다. 이 분도 웃음 머금은 눈매가 광원신 씨와 닮았습디다. 어린 날의 우정은 싹이 트고 자라 서로의 아픔까지 품어주는 그늘 큰 나무를 만들었습디다.



커다란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아침 한 끼를 편히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티덜티덜 빈손으로 걸어도 속 편한 인생도 있다는 광원신 씨 말씀처럼 세상은 어느만큼 불공평하고, 세상은 또 어느만큼 공평합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가고 있다면, 내일은 좀 나은 길을 이미 예약한 걸 거예요.

행주대교 남단의 김밥을 드셔보신다면, 행복과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김밥에는 광원신 씨의 인생철학도 같이 들었거든요. ☆

■ 의약품은 다른 업종에 비해 라이프사이클이 긴 편이다. 한번 개발된 약은 평균 30~50년의 수명을 갖는다. 1970년대에 창업한 (주)동구제약은 당시 전립선 질환 치료제인 '세닐톤'으로 국내 전립선 치료제 시장을 가장 먼저 개척했고, 이를 통해 회사 이름을 알렸다.

(주)동구제약은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100여 종에 이르지만, 특히 피부과와 비뇨기과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주)동구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전체 제약업계 중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피부과와 비뇨기과 처방 순위에서는 각각 3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 피부과의 40~50%와 거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수치를 7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한다. 향후 복합제 신약 및 개량 신약을 통해 피부과와 비뇨기과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것이 (주)동구제약의 전략 목표 중 하나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창업 2세인 조용준 대표가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난 건 지난 2006년이다.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꼈지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취임 첫 해인 2006년에 매출 270억 원을 달성했고, 2008년에는 무려 44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올해 목표는 1,000억 원으로, 이 역시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1989년에 K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공장을 지으면서 막 성장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시기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셨고, 이런 이유로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과 회복을 반복하며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급신장시킨 원동력은 뭘까? 그가 가장 먼저 꼽는 건 태도경영이다. 조 대표는 (주)동구제약의 태도경영시스템인 'DAMS(Dongkoo



(주)동구제약을 찾은 IBK기업은행 고척동지점의 서원석 지점장(맨 왼쪽)과 IBK캐피탈 여의도지점 신태호 지점장(맨 오른쪽)

태도를 바꾸면 사람과 기업이 바뀐다

IBK기업은행 고척동지점 고객 | (주)동구제약 조용준 대표 |





Attitude Management System)' 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문화로 발전시켰다.

“직원들의 유형을 보면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 시키는 것도 잘 안 하는 직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회사는 저절로 잘 되겠지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통해 간절함과 목표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제약업계 시스템이 아닌 보험업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주)동구제약에 맞게 정착시켰다. 또 ‘동구 명예의 탑’을 만들어 칭찬과 긍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다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성공 경험을 안겨주기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100% 달성을 유도했다. 좋은 시스템은 우수한 인재들을 불러 모았다.

조용준 대표는 매주 월요일 아침 30분가량 직접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의 핵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몇 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새벽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인근 고척근린공원에서 구호를 외치며 4~5킬로미터의 트랙을 돈다. 매달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며 좋은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처럼 조 대표가 직



우리 직원들이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스스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원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CEO의 생각을 알리고, 회사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IBK기업은행 고척동지점의 서완석 지점장은 “조 대표께서 편(fun) 경영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상대방에 대한 이해, 직원들과의 비전 공유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의 저력과 내공이 이제 막 발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IBK캐피탈 여의도지점 신태호 지점장은 “대표 취임 후 해마다 매출이 20~30% 이상 급신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조용준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다음 아닌 인재다. 기업의 힘은 곧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지속가능경영, 인재육성, 차별화 전략, 해외시장 개척, 고객만족이라는 다섯 가지의 큰 과제를 갖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인재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자신의 재능을 몇십 배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사장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모두가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스스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백년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주)동구제약의 변화와 혁신은 끝이 없다. 중앙연구소와 완제품창고를 짓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 연구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메틸화 유전자 암 진단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힘들어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DNA 검사를 하고, 이를 통해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주)동구제약 임직원들의 기대 또한 크다.

(주)동구제약은 얼마 전, 2020년에 5,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20대 제약회사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듬하여 ‘Jump Up 2020 - Dynamic Dongkoo’. 앞으로 10년 동안 매출액 20% 성장, 영업이익의 20% 달성, 매출대비 R&D 투자 20%, 매출 대비 수출 20% 달성 및 오리지널 제품 20% 확보, 국내 제약사 20위 도약을 의미한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용준 대표와 임직원들의 각오도 새롭다.

“(주)동구제약의 40년 역사는 대한민국 제약 산업 발전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 조용준 대표의 성공 노하우

- ① **태도경영의 기업문화** DAMS(Dongkoo Attitude Management System)은 (주)동구제약 임직원들의 태도경영시스템이다. 높은 실적을 거두는 최고의 인재라 하더라도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태도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신념과 실천** ‘우리는 우수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있다. (주)동구제약은 국민 건강을 위한 신념과 실천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③ **전 직원의 비전과 전략 공유**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주)동구제약은 100년 지속 기업을 위한 미래 핵심비전을 제정·선포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 적금이나 펀드냐 고민될 때?

### 안정과 수익!

##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IBK적금&펀드」

요즘 은행가에는 복합 상품이 인기다. 안전하게 예(적)금으로 자산을 굴리자니 금리가 낮아 망설이는 투자자들을 위해 적금과 펀드를 결합한 복합상품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표적인 복합상품인 「IBK적금&펀드」는 최근 ‘2010 대한민국 금융혁신 대상’에서 은행부문 금융상품·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이다.

「IBK적금&펀드」는 주식 시장상황(KOSPI)에 따라 적금과 펀드에 자동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상품 가입시점에 고객이 직접 KOSPI 기준지수 구간을 설정하고, 매월 자동이체일마다 이 기준지수 구간과 비교하여 자동이체 前영업일의 KOSPI 지수가 낮으면 펀드의 적립비율을 높이고, 높으면 적금의 적립비율을 높

이는 상품이다. 즉 KOSPI 등락에 따라 이체비율을 자동으로 설정함으로써 매입단가평준화 효과(Cost Averaging Effect)를 통해 등락이 반복되는 주식시장에서 위험 대비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금과 펀드의 이체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형태를 찾아가도록 설계되어 금융 초보자나 바쁜 직장인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적금의 안정성과 펀드의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똑똑한 상품으로 재테크를 시작해보자.

프리미엄 기초화장품 브랜드 (주)솔티패밀리그룹 'BOU'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BOU(Butterfly On You)는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변모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진 프리미엄 기초화장품 브랜드다. 화장품에 대한 열정

으로 뚝뚝 뭉친 20~30대가 주축이 된 (주)솔티패밀리그룹과 국내에서는 ICS와 에스까다로 잘 알려진 (주)한화화장품 기술연구소가 손잡고 유럽과 미주, 중동의 프리미엄 화장품시장을 타겟으로 개발한 브랜드다. 그 첫 번째 작품인 블랙펄 페이스 트리트먼트 컨센트라(Black Facial Treatment Concentra, 이하 블랙펄크림)는 지난 6월 두바이에서 열린 '2010 국제 화장품 및 미용용품 박람회'에서 흑진주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사용감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및 미주, 중동지역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BOU의 첫 작품인 블랙펄크림에는 기존의 단순 흑진주 추출물만이 아닌 진주 속의 진주, 일본에서는 '위대한 1%'로 불리는 '콘키올린'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진주에서도 극소량만 추출된다는 단백질인 콘키올린은 인체피부의 구성요소인 NMF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단시간 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지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피부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항산화작용에도 적극 대응해 항상 생기있고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주는 게 특징이다.

BOU의 블랙펄크림의 또 다른 재미있는 애깃거리는 대부분의 화장품에 쓰이는 기초원료인 '물' 그 중에서도 '정제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반 물 대신 하와이에서 공수한 '하와이언 담씨 워터'를 사용해 기존의 화장품과는 기초원료부터 확연히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에서 자생하는 7가지 해양추출물을 엄선해 혼합한 'MARINE 701 COMPLEX'가 함유되어 나이와 피부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추구하는 미백·주름개선·보습·영양 등의 복합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준다.

- IBK기업은행 천호지점 거래고객
- 브랜드명 : BOU 구매문의 : 031-743-7032 / eclips1975@hanmail.net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번지 포스테크노 213호

IBK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사랑수기 공모 당선작

“사랑하는 우리가족”

여성시대에서는 가족사랑 아이스크림 투게더와 함께 가족사랑수기 '사랑하는 우리가족'을 공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족 가족사랑수기를 써서 뽑으신

가족상 한 팀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황금가족여행권을 드리고 7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족사랑여행권까지 모두 4,0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1등! 가족상

열 식구의  
좌충우돌 생활이야기  
\_ 이말희 님

2등! 사랑상

내 손자 어머니  
끝까지 내 며느리  
\_ 황점숙 님





# 열 식구의 좌충우돌 생활이야기

글 이말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빠라빠라빠라 빠!’

휴대폰 멜로디가 울려도 준이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참 다뭇해 준이방으로 쫓아가서 이불에 둘둘 말려서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반쯤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준이의 등줄기를 후려칩니다.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학교가거라!”

저는 올해 55세이고 서른한 살 먹은 딸, 스물여섯 살 먹은 둘째딸, 5년 전 우리 집과 인연이 되어 중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용준과 11년 전에 우리 집과 인연이 되어 기르는 시츄종 강아지 ‘용돈이’와 용돈이의 안식구 ‘용순이’와 용돈이·용순이의 자식 머루·하늘·우주·행복이 등 다해서 열 식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머리 희끗희끗한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어딜 갔느냐 하면, 우리의 두 딸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저보다 더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저희 세 모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 두 딸과 함께 그야말로 ‘여자의 일생’의 길을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바람기를 견디기 힘들어서 저의 어린 두 딸과 함께 경상도의 어느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했습니다. 시골서 방 한 칸 얻어서 두 딸을

공부시키며 조그마한 분식집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분식집 앞에 우유 대리점이 있었고 용준인 그 우유대리점 젊은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좁은 길 하나를 두고 분식집과 우유대리점이 있어서 우리 딸들과 용준이는 서로 누나·동생 하면서 학교에 갔다 오면 서로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 때가 용준이 나이 네 살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용준엄마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용준이를 우유 배달차에 싣고 새벽에 다른 대리점으로 배달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함께 타고 있던 용준이는 의자 앞에 깔렸는데도 살아났고요.

젊은 용준아빠는 용준엄마 사고 이후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온갖 여자들을 대리점으로 불러 들였고, 데리고 온 젊은 계모들은 용준이를 북어 패듯 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계모라는 이름으로 용준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용준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실 좋게 한참 재미나게 살 무렵에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내를 그렇게 보냈으니 그 충격은 또 얼마나 컸겠으며, 그 가슴 아픔은 오죽했을까 싶어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와 제 두 딸은 시골 생활을 접어야 하는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돈이와 용순이도 자식을 낳아서 우리 집은 사람 셋에 강아지 여섯, 모두 아홉 식구가 되었습니다. 시골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서울에 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내어주는 지금의 주인집이 있어 우리 딸들과 용돈이네 식구들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시골에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용준이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찾아가서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가르쳐준 제 전화번호를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도 용준이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용준이가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새엄마랑 나가셨는데 며칠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너무 무섭고 배고파요”였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저는 딸들과 의논을 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버스가 하루 두 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촌에다 용준이를 데려다 놓고 며칠째 새로 만난 새엄마라는 여자와 아빠가 집에 안 온다는 것,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일까요? 아빠한테 전화를 하니 서랍에 돈 얼마 있으니 그걸로 먹고 싶은 것 사먹고 아빠를 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용준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큰엄마 생각만 나더라고 하더군요. 용준이 엄마가 죽기 전, 시골에선 다 그러하듯 이웃들에게 형님·아우·큰엄마·숙모·삼촌 하고들 지내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내려간 시골에서 용준이와 며칠을 보냈습니다. 용준이는 제가 온 것만으로도 좋은지 그 쌀쌀한 늦가을 남의 집 마당에 반쯤 얼어있는 홍시를 따와서 나눠 먹었고, 서로 덜덜 떨며 긴긴밤을 보내면서도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맙다고.

그런 용준이를 두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용준이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딸들과 의논했습니다. 큰딸은 속이 깊어 말이 없었지만 작은딸은 절대로 싫다고 했습니다. 작은딸은 힘든 사춘기를 지내면서 특히 아빠에게 받은 상처, 그 때문에 생긴 남자에 대한 불신들을 이유로 들며,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저는 용준이를 보러간 날 용준이가 따온 감을 먹을 때 좋아하던 녀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는 말로 아이를 설득했고, 그렇게 용준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퇴거를 하여 중학교에 입학할 시켜서 우리는 비로소 용준이와 우리 가족, 용돈이네 가족까지 모두 열 식구의 시골시골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선 월세로 60만 원을 내는 작은 원룸에서 씻고 나오면 서로 “눈가려”, “하늘 봐”, “땅 봐”를 외쳐야 했고, 잠잘 때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용준이가 숙제라고 리코더를 불면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노래를 연주할 때면 정말 불쌍하고 안 된 마음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죽은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아빠조차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착한 용준이는 별탈없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코흘리개 용준이가 벌써 고2. 공부는 정말 못 합니다. 학원을 보내도 영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만날 저에게 혼나고 누나들에게 혼나고 하지요.

그러던 지난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정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혼자 계산 친정어머니도 걱정이 되고 해서 어렵게 시간을 냈습니다. 저는 일일파출부로, 큰딸은 비정규직으로, 작은딸은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든요.

강원도에 다녀온다고 하고 보충 수업하는 용준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용준이에게 용돈이네 가족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하고 다녀오던 중, 충주쫄면가에서 큰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용준이가 다니는 학원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용준이가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휴대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간장 녹는 시간이 흘러 집에 도착하니 용준이가 집에 없었습니다. 가출을 한 것이지요. 심장이 멎어버릴 듯한 걱정과 배신감에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 딸 아이들은 근처 PC방부터 용준이를 찾아 헤맸고 정말 신이 도우셨는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용준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온 용준이가 다른 아이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용준이의 휴대폰에는 친구들에게 보낸 입으로 담기 어려운 욕설과 집을 가출했으니 재워달라는 등의 문자가 수두룩했고, 정말 이 아이가 우리 용준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와 큰딸은 몸져누웠고 그래도 씩씩한 작은딸은 사태를 수습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2월에 갑자기 엄청나게 체중이 줄고 일을 못할 정도로 목이 마르고 힘 들어 평소 고혈압 약을 처방받던 병원 원장님 권유로 피검

사를 했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한 알 정도로 치료가 되는 병이지만 저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고, 결국 바깥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치료를 받아 지금은 저하증으로 바뀐 상태고, 전과 달리 살이 붙고 기분도 조금씩 우울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계신 엄마가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 갔던 것이고요. 그 질환에는 신경 쓰는 것이 금물이라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는 일이 생기는 게 사람 사는 일상인데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용준이가 스쳐 지나가야 할 사춘기라면 지나가야지 싶어서 “왜 그랬는데?”라고 제가 물으니 용준이가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하더군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머리털 검은 짐승은 겨두는 게 아니구나, 그 자식 기죽지 말라고 큰딸이 고복도 메이커로 해주고, 가방도 신발도 모두 메이커로 해줬는데….

자기 아빠처럼 되지 말고, 무식해도 돈 없어도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 자식이 그걸 회피한다는 생각에 정말 혼절하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용준이는 시골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은딸이 가방을 챙겨 터미널에 가서 차를 태워주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용준이 너, 정말 시골로 가고 싶니?”

“네, 누나. 큰엄마의 잔소리 지겨워요.”

그래서 작은딸은 “그래, 이 시간 이후에 너, 나랑 어디에서라도 마주치면 절대로 서로 아는 체하지 말자” 했답니다. 그렇게 용준이를 버스에 태워 시골로 보내고 돌아온 작은딸은 며칠을 몸져누웠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그래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죽은 듯이, 말없이 보냈습니다. 뺨 뚫린 가슴을 안고 우리 세 모녀는 앞으로 누구도 믿지 말자고, 젊으나 늙으나 남자는 절대로 믿지 말자고 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너무나 힘들었던 며칠이 지나 용준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 착한 큰딸과 자식으로 여겼던 저는 이해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용준이와 함께했던 작은딸은 아직까지도 용준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는 말에 받은 상처가 너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용준이와 밥먹는 것도, 함께 생활하는 것도 거부하며 힘들어하는 작은 딸이 가슴이 저리도록 불쌍합니다. 행동은 그렇게 해도 저녁에 출근을 하면서 용준이 먹을 저녁거리 다 챙겨놓고 가는 그런 착한 딸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남이 만나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이렇듯 힘이 드나 하는 후회로 가슴이 아픈 날도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용준이를 보면 그동안의 잔소리가 허사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작은 집에서 열 식구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정어머니께서 견지를 못하셔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친정 식구인 우리 육 남매, 서로 쳐다보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집도 절도 한 칸 없이 사는 제가 무얼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뿐인 것어요.

저는 이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와 제 딸들이 뿔뿔이 나서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어두운 굴속을 빨리 빠져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제가 죽은 자기 엄마를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용준이와 우리 강아지 용돈이네 식구들 그리고 자식들 키우시느라 자신의 무릎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만하시다가 결국은 그 자식들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가지게 된 우리 엄마도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죽도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고 진심으로 저는 제 두 딸과 용준이와 우리 엄마와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

# 내 손자 어머니 끝까지 내 며느리

글 황점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장** 모님은 제가 모실게요.”  
“이 사람 뉘 소린가? 내가 왜 사위하고 살아.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어머니는 늘 큰소리를 치셨다. 남편은 신혼시절 철부지 사위일 때부터 어머니가 혼자되시면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곤 했다. 이후에도 남매들이 모여 술자리를 펼 때마다 몇 차례 더 어머니와 설전을 벌였다. 그때마다 어머니 역시 변함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어머니는 언제나 든든한 아들, 며느리를 기둥삼아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세월을 겁내지 않으셨다.

“어머니, 힘드시죠. 걱정 마시라니까요. 진작부터 제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 해 어머니는 더 이상 큰사위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지 못하셨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픔을 겪게 돼 사위뿐 아니라 동네사람들에게 기를 펴지 못하고 사신 지 다섯 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내 몸 성하니 내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하네. 자네 뜻은 참 고마워.”

어머니는 과시하듯 몇 년째 같은 말을 하는 큰사위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신 것 같다. 큰아들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어머니는 아

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만큼 힘들어하셨다.

큰손자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부터 큰아들 내외의 잦은 부부싸움 소식이 전해졌고, 일순간 부는 희오리바람으로 여겼건만 결국 이혼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다.

“오빠가 이혼을 했다는데, 그게 뭘 소리다냐.”

“그러게 이혼을 했다는구만요.”

“너도 어서 차비하고 오거라. 내가 니 오빠 집에 가봐야지 안 되겠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를 호통쳐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돌려놓을 기세로 오빠 집으로 달려가셨다. 이미 자취를 감추고 휴대전화조차 받지 않는 아들을 욕하면서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다. 올케는 화를 이기지 못한 듯 시어머니께 분함을 풀어 볼 양으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끌어다 아랫목에 앉히고, 호통을 쳐서 빌어먹을 이혼 소송을 묵살시키고 싶었겠지만, 끝내 아들은 어머니를 피해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망연자실, 허전한 맘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행여 누가 위로라도 하려는 듯 큰아들 이혼 소식을 물으면, 노발대발하시면서 며느리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다. “내 손자를 낳아주었으면 죽을 때까지 내 며느리인겨”라며 끝까지 맘속에 간직하셨다.

“올케 언니는 잘 지낸다냐?”

기름 드리는 안부 전화 말미에 큰며느리의 소식 묻기를 빠뜨리지 않으셨다. 몇 달간 고향집을 오지 못하던 아들이 백배사죄하고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며느리는 입장이 다르니 이내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조왕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면서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 타는 속을 호미질을 하면서 한숨으로 토하셨고, 낫질을 하면서 눈물을 삭히셨다. 손으로 지은 곡식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보따리 개수 역시 줄지 않았다. 아들을 따라 온 손자들 손에 고추장·된장·간장 등 갖은 양념을 모두 챙겨 보내놓고 또 몇날 며칠을 기

다리였다. 몇 년이 흘러도 며느리에 대한 미련을 조금도 떨지 못하고 사셨던 것이다.

어머니가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고 지칠 때쯤, 내게 전화를 해서 애통함을 푸셨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내 손자 키우고 있으니까, 아직도 내 식구지 뭘 잊고 말고 하나.”

오히려 내게 호통을 치시며 답답함을 달래셨다. 어머니의 마음 속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나 역시 하나 밖에 없는 올케언니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나보다 한 살 위인 언니는 내가 봐도 손아래 동생처럼 연약해 보였다. 신혼 시절에 조카가 태어났다는 말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고생한 언니를 위로했고, 고향 집에 언니가 온다고 하면 먼저 가서 맞았다.

결혼하던 이듬해부터 친동생들의 생일은 잊어도, 언니의 생일은 잊지 않고 챙겨줬다. 이런 정이 법이 갈라버린 가족관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는 정말 비참했다.

“아가씨는 내가 지금도 같은 식구인 줄 아세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표독스럽게 싸 부치는 언니의 목소리에 차츰 용기를 잃어갔다. 동생들도 차마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고 올케언니 소식을 늘 내게 물었다. 언제나 내게 언니에게 다가갈 용기를 심어준 속 깊은 동생들이었다. 가끔 고향 집에서 조카들을 만나면 용돈부터 챙겨주며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큰조카가 군대에 갔을 때 어머니를 모신 23명의 가족이 승용차 4대로 부대까지 찾아갔다. 비록 부모는 헤어져 살지만, 우리 가족의 정은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었다. 언니의 생일이 되면 통장에 축하금을 넣는 일이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는 문자를 한 통 넣었다. 3년은 회신도 없더니 4년 되던 해 언니는 답을 해주었다. ‘이제는 잊을 만도 하건만, 고맙습니다.’ 간단하고 애잔한 글귀가 내게는 찬란한 서

광으로 비춰졌다. ‘이제는 언니 맘속에 도사리고 있던 미움이 식어가는구나!’ 짐작했다.

그 해 설날 큰조카는 “엄마가 사는 것이 힘들어 재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내게 전해 주면서 울먹였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오빠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조카들 역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며 정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다.

조카의 전갈을 간접적인 도움 요청으로 여기고 난 사생활에 관여해 보기로 했다. 나는 먼저 언니와 만남을 모색했다. 만나려면 사는 도시가 같지 않아 적어도 하루 시간은 내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다. 남편에게도 어디를 간다고 돌려 댈 말을 찾지 못했다. 내 생각과 달리 남편은 이혼의 원인이 처남택에게 있다며, 언니에게 연연하는 나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길이 열렸다. 새로 얻은 직장에서 분기별로 교육이 있었는데 고맙게도 장소가 광주였다.

교육이 있던 첫 날, 교육을 마치고 언니의 꽃집으로 갔다. 언니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나를 놀라면서도 반겨주었다. 언니 얼굴은 5년의 긴 세월 동안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생업을 위해 꽃가게, 옷가게, 다시 꽃가게를 전전하며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아주 잠깐 동안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조카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던 터라 서로 안부를 챙기고 이내 속 깊은 얘기를 하였다. 길바닥에 어둠이 깔리고 도시가 다시 불빛으로 환해진 것을 보고 일어섰다.

“언니, 다음에 또 와도 되죠?”

“그럼요. 아무 때나 오세요.”

꽃가게를 나오는 나는 발걸음이 뚱뚱 뚱뚱 있었다. 그랬다. 맘속에서 지워내지 않고 있었던 부담을 지운 보람이 내 가슴을 한없이 부풀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고향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올케언니의 안부를 전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큰딸의 기특한 생각을 연신 칭찬을 하시는 어머니 역시 말소리에서 기쁨이 흘러넘치셨다. 오빠 부부의 이혼은 어머니의 맘을 아프게 한 것 이상으로 우리 남매들에게도 헤어나기 힘든 고통이었다.

3개월 뒤, 또 언니를 찾아갔다. 이제는 언제 우리가 소식을 두절했던 사이였던가 싶게 어색함도 없었다. 마침 갔던 날 꽃집에는 언니의 친구들이 모임을 마치고 모여 있었다. 친구들은 신기한 듯 나를 마냥 쳐다봤다. 이혼한 친구 시누이의 방문, 어찌 생각하면 구경할 만한 일이다. 두 번째 다녀온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다음에는 나도 한 번 따라 가 보면 안 될 거냐?”

“왜 안 돼요. 제가 연락할 테니 같이 가요.”

드디어 약속한 날, 교육은 오후인데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갔다. 어머니도 광주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고 고향 집에서 출발하셨다. 터미널에서 만난 어머니는 보따리를 두 개나 들고 계셨다.

“내가 따라와서 주책이라고 안 할란가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뭘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빈손으로 간 다냐. 얼마나 오랜만인디.”

어머니는 막상 따라나섰지만 못 올 곳을 온 것처럼 난처해 하셨다.

“언니, 저 또 왔어요.”

“어서 와요.”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데요.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언니는 어머니 손에 든 짐을 받아 바닥에 놓고 두 손을 덥석 잡고 인사를 했다.

“니가 보고 싶어서 내가 따라왔다.”

언니는 마치 친정어머니를 만난 듯 어머니를 반겨주었다. 어머니가 염

려했던 어색함은 한순간도 없었다. 언니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어머니를 가게에 남겨두고 교육장으로 갔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가셨지요?”

“예, 그런데 저는 용돈도 못 드렸는데, 어머님이 돈을 주고 가시네요.”

어머니는 머느리 일을 거들면서 꽃집에 머물다가 오후 다섯 시가 되어 터미널로 가셨단다. 끝나버린 가족 관계이런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

서로 잊지 못해 찾아가서 사는 모습을 봐야 하는 가족은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헤어진 게 아니라고 확신하고 돌려놓는 길을 찾기로 했다.

오빠의 마음을 떠 보기 시작했다. 사실 오빠 한 사람만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온 가족이 평온할 일이었다. 만나서 말을 하면 서로 언성을 높이기가 몇 년째라 새삼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았다. 어렸을 때 유난히 우애가 좋았던 오누이었다는 말은 까마득한 옛일 같았다.

오빠 생일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일주소를 물었다. 오빠는 메일주소를 알려주었고, 나는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과 그동안 언니를 찾아갔던 일을 자세히 적어 보냈다. 몇 번 답장을 보내던 오빠는 나중에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수신거부 등록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난 계속 메일을 보내면서 오빠가 속마음을 열어 보이기를 빌고 또 빌며 간절히 기다렸다.

‘오빠도 지금의 생활이 편치 않고, 식구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힘을 빌려보세요.’

오빠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인신공격도 많이 했지만, 말미에는 꼭 오빠가 내게 다가설 여유는 남겨두었다. 우리 남매들은 이혼과 함께 오빠를 외면하며 모든 일의 책임을 오빠 탓으로 돌렸다. 피와 살을 나눈 동생들이 맘을 굳게 닫자 오빠는 아예 입을 다물고 고충을 전혀 말하지 않았던 터라 오빠 맘을 열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오빠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까 어머니 걱정이나 덜어 드려라.”

이처럼 오빠는 한동안 완강했다. 처음에는 강경하던 오빠가 답장을 안 하는 것을 거부로 보지 않고, 심리적 변화로 간주한 나는 기대를 키워갔다.

내가 언니를 찾아가고 2년 만에 오빠를 설득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인 올 3월 말일 나는 믿기지 않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동생, 나 지금 언니 집으로 가는 중이다. 언니가 문을 열어 줄지는 모르지만.’

밤 10시. 내 휴대전화로 들어온 문자인가 의심을 하고 보낸 사람을 확인했다. 분명 오빠였다. ‘문자로 답을 할까?’ 아니지 싶어서 통화버튼을 눌렀다. 착 가라앉은 오빠의 목소리가 문자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오빠, 잘 생각했어. 맘 변치 않는 거지? 내가 언니에게 전화해 줄게.”

나는 객기를 부리 듯, 언니는 내 말을 들어 줄 거라는 확신으로 오빠에게 믿음을 주면서 전화를 끊고, 바로 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나와 통했던 언니가 아니었다. 잔뜩 화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난 언니의 고함소리에서도 희망을 찾고 싶었다. 언니는 꽃가게마저 자리잡지 못해 음식점 주방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감추지 않고 질러대는 고함에서 그동안 억울한 7년의 세월을 푼돌 뭉쳐 내뱉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룻밤에 용서가 됩니까?”

“물론 안 되지요. 내가 언니가 아프다는데 힘이 되지 못해 정말 속이 타다. 오빠랑 합치면 아플 때는 챙겨 줄 것 아니요.”

나는 비겁하게도 언니의 가장 약점을 찔러 언니를 설득했다. 전화를 끊고 큰조카에게 전화를 했다. 달려갈 수 없으니 이 상황을 잘 조율할 사람은 조카뿐임을 직감했다. 다행히 조카는 아빠의 무거운 발걸음에 동행을 하고 있었다. 벌써 성인이 된 조카는 “걱정 말라”며 “두 분 다 본심을 합치는 것을 원한다”고 의젓하게 나를 안심시켰다. 순간 이런 좋은 소식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님을 알았다. 조카의 힘이 컸다는 것을 직감했다.

성급하게 알릴 일이 아니지만, 참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가 집으로 들어간단다. 정말 꿈만 같구나. 오빠에게 힘을 주자.’

동생들 역시 아닌 밤중에 흥두께 같은 소리가 싶어 반문을 해왔다. 밤잠을 설친 나는 다음 날 조카에게 문자를 보냈다. 꿈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 큰소리는 오갔지만 오빠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확인하고 난 뒤 고향집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는 아예 말을 잊으셨다.

“하이고...”

“어머니, 말씀 좀 해봐요.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뒤로 넘어지거나 앉으셨을까봐 싶어 나는 계속 어머니를 불렀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다시 말문을 연 어머니는 젖은 음성으로 이제는 동네에서 고개 들고 다니겠다고 정말 좋아하셨다. 아버지 산소에 들러서 소식을 알려 드려야겠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으셨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동안 나이 탓이라 여겼던 불면증까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그동안 오빠의 이혼은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다.

“어머님은 저랑 사실 거죠.”

“이 사람, 나도 아들·며느리 있잖은가. 난 우리 며느리랑 살라네.”

지난 추석 때 어머니는 예전처럼 큰소리로 사위의 청을 당당하게 거부하실 힘을 얻으셨다. 우리 남매들은 명절이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머니 곁으로 모였다. 그러나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위들이 나이가 드니까 재미가 없어진다고 서운해 하셨다. 그러나 지난 추석, 새벽이 밝을 때까지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사위들 나이가 더 많아졌지만, 기세 좋게 고스톱을 치면서 호탕한 웃음소리도 여전했다.

다시 만며느리 자리를 되찾은 언니 역시 가족들 틈에 끼어 그동안 못 나눈 정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잃어버린 며느리를 찾은 우리 집은 다시 웃음꽃이 울타리를 넘고 있었다. 만며느리인 율케언니는 우리 집의 꽃이었다. ☆

# 당신 생각은 어때?



가을, 단풍철을 맞아 철수 씨와 정희 씨 부부도 1박2일 여행계획을 세웠다. 마침 친구들과 당일치기로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갔다가 꼭 하룻밤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다.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욕심이 나는 집”이라며, “이런 집은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절대 남아나지 않을 거”라면서 서둘러 예약금을 걸고 가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정희 씨는 그 집 명함만 챙기고는 “다시 연락하겠다”며 돌아섰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친구들이 정희 씨를 놀렸다.

“아니, 너는 그렇게까지 신랑한테 줘야 하나? 그 정도도 혼자 결정 못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냐?”

“그렇게 말이야. 정희신랑이 보기와는 다르게 권위주의적인가 보네.”

그러나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철수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행지가 어땠나?”라는 물음이 수화기 밖으로 흘러나왔다.

“아주 좋았어. 당신도 여기 와 보면 좋을 거 같아.”

숙박시설이랑 음식은 어떠냐고 묻는 것 같았다.

“마침 맘에 드는 집이 있었어. 당신도 보면 좋아할 거야.”

옆에서 듣던 친구들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남편이 좋아할 것을 알면서도 예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 좋아할 것을 알지만,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은 그 사람 생각을 들어보고 해야지.”

철수 씨 회사에서 우리사주 공모를 하였다.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일명 ‘땅 잡고 헤엄치기’라고 할 정도로 돈 벌기 좋은 찬스니 모두들 앞 다투어 서둘렀다. 그러나 철수 씨만은 움직임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우리사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결국 철수 씨는 회사주식을 사고, 정희 씨는 맘에 드는 민박집을 예약했다. 혼자서 판단해도 같은 결과였겠지만 굳이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명공동체인 파트너십을 잃지 않는 것이다. 파트너십이 있다면 여건이 안 좋아도 극복할 수 있지만 제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황도 파트너십이 없다면 한순간에 파토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저절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심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순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실 남남이 만나서 부부라는 운명공동체·일상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한 사이라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백인백색이라 했으니 사람마다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동일한 사람도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어려운 일을 어찌 성사시킬 것인가?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상대의 의견을 항상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정희 씨 친구들은 처음과 달리 정희 씨가 존경스러워졌다. 관계의 지혜를 어떻게 터득한 것일까. 나이는 똑같은데 삶의 스승이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도 바로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한 마디가 부족해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잖니. 시동생이 찾아와서 간병인비를 분담하자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 나한테는 한 마디 없이 오케이를 하더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형수에게 연락하라’고 나한테 넘기는 거야. 섭섭하더라고. 내가 반대할 사람도 아닌데…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한 마디만 했어도 내가 시동생 앞에 낯이 서잖아. 무시당한 느낌도 안 들고, 따지면 치사한 사람이 될까봐 가만있자



니 속에 더 쌓이는 거 있지?”

“그렇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복수심 같은 것도 생겨. 나중에 나도 한번 똑같이 해주리라..”

남의 눈에 아내에게 큰소리 치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앞에 남편을 쥐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성숙한 부부관계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는 모습은 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도 다 속으로는 부러워한다. 다만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자, 지금부터 말해보자.

“당신 생각은 어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부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인간관계의 진리다.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전자폐기물

## 전자제품의 여행



기계보다  
잘하는 일

컴퓨터가 고장났다. 자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우스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 말귀를 못 알아 듣고 동문서답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 꼴이다. 잘 작동할 때는 편리한 것이 기계지만 한번 고장나면 그 답답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얼른 수리점에 맡겼다. 컴퓨터가 사라진 행한 자리에 쌓인 먼지를 닦고 보니 내 마음도 텅 빈 것 같다.

할 일이 없어졌다. 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자판을 두드리다가 계획에 없던 휴가를 얻었다. 그런데 어째 휴가가 달갑지 않다. 뉴스를 읽고 정보를 찾는 일 대부분을 컴퓨터에 의존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

올 때까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야 할까 보다.

‘인터넷엔 무슨 소식이 떴을까? 메일은 몇 통이나 왔을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신경은 온통 그곳에만 쏠려 있다. 컴퓨터뿐 아니라 우리 집에는 많은 전자제품이 집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세상의 소식을 알려주는 텔레비전, 찬장 구실을 하는 냉장고, 바깥과 소통하는 휴대전화, 순간을 기록하는 디지털카메라... 언제 이렇게 사들였지? 휘 둘러보니 집안이 비좁다.

기계는 사람이 하는 일에 보조수단으로 생겨났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드물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친구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을 할 때도 계산기를 찾는다. 이렇게 기계가 일을 대신해 주는 동안 내가 더 잘하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그 기계를 사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아끼던 전자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어디로 가는 걸까?

여행을 떠나는  
쓰레기

중국 광둥성 구이위진 룽먼 마을은 쓰레기 마을로 유명하다. 텔레비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 휴대전화같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자폐기물이 마을 곳곳에 산을 이루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쓸 만한 부품은 골라내고, 나머지는 태워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성이 있는 물질을 태우지만 사람들은 안전시설이나 장비도 없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전자쓰레기를 만지고 있다. 골목길은 까맣게 오염되었고, 마을 옆 개울에는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약 10만 명이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1950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전자쓰레기가 더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전자제품을 분리 가공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마을이나 중국에서 쓰고 버린 것이 아니라 미

국과 일본, 유럽 세계 곳곳에서 이동해 온 것이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제품도 있다.

이 마을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세상에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전자폐기물 중개 무역자인 홍콩을 통해서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계속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옷이나 페플라스틱 같은 다른 물품과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아프리카의 가나 테마 항에도 해마다 약 500톤 분량이 넘는 전자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다.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전선을 뜯어낸 뒤 태우면 구리를 얻을 수 있는데, 구리는 가나의 주요한 수출품목이 되었다. 이 구리를 얻기 위해 전자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어린 10대 아이들이다. 하루종일 이것을 태워서 버는 돈은 우리 돈으로 겨우 1,200원 정도다. 이렇게 전자폐기물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바롬 같은 유독성 물질을 날마다 들이마신 아이들은 병을 얻어서 고생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가입한 바젤협약은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자폐기물을 중고제품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있다.

**되도록 적게 버리는 것**

전자제품 안에는 금과 구리 같은 소중한 자원이 들어 있고, 이것을 생산할 때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240킬로그램과 화학물질 22킬로그램, 물은 1.5톤이나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어떤가? 신형 전자제품이 나오면 금방 새 것으로 바꾸고, 조그만 고장이 나도 쉽게 버리고,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참에 잘 됐다 싶어 곧 새 제품을 기웃거

린다. 전자제품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자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은 애초부터 맘에 쏙 드는 튼튼한 제품을 사서 소중하게 오래오래 아껴 쓰고, 되도록 적게 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분리배출하고, 처분방법이나 수거 장소를 잘 모를 때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따라 생산자나 해당 기업에게 문의하면 된다. 날마다 애지중지 사용하는 값비싼 전자제품, 날마다 당신을 위해 맹렬하게 일하는 당신의 전자제품은 과연 몇 살이 되었는가? ☆



**물건을 살 때 먼저 생각해 볼 것**

- ① 꼭 필요한 것인가?
- ② 광고만 보고 덜컥 집어든 것은 아닌가?
- ③ 물량공세와 낮은 가격, 끼워 팔기에 유혹된 것은 아닌가?
- ④ 제품안내서를 꼼꼼하고 간간하게 읽었는가?
- ⑤ 본체보다 부속품이나 연료비가 더 들진 않는가?
- ⑥ 내 손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 ⑦ 부속품 교체나 수리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가?
- ⑧ 원산지와 제품을 만든 기업은 건강한 곳인가?
- ⑨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것인가?
- ⑩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 쓸 순 없는가?
- ⑪ 환경마크가 붙어 있거나 에너지 고효율 제품 표시가 붙어 있는가?
- ⑫ 쓰고 난 뒤 재활용되는 것인가?
- ⑬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박경화 씨는 환경과 생태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여우와 토종 씨의 행방 불명> 같은 책을 썼어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더 흥미롭고 즐거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 단풍여행과 약수를 찾아 떠나

강원도  
홍천·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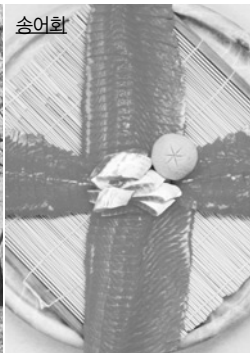
가을은 단풍여행이다. 붉게 물든 산등성이를 걷다보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단풍은 설악산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지금 강원도는 온통 붉은색 잔치다. 굳이 산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휴양림에 머물면서 단풍여행을 해도 좋다.

홍천 내면에서 양양 서면으로 이어지는 56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삼봉휴양림(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이 나타난다. 3개의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어 이름이 '삼봉'이다. 사삼봉·공칠봉·옹복산 이 세 봉우리는 마치 어머니의 너른 치마폭처럼 포근하게 삼봉휴양림을 안고 있다. 삼봉휴양림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 때문에 미소가 저절로 얼굴에 번진다. 잘 닦여진 오솔길은 '놀멍 쉬멍' 걷기 좋다. 걷는 동안 새소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바람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람결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삶이 이렇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봉휴양림에는 숲속수련장·야영장·숲속의 집(16동)·산림문화휴양관(8동) 등의 숙박시설이 있다. 인기가 많아 서둘러 예약을 해야 묵을 수 있다. 휴양림에 있는 삼봉약수는 명성이 자자하다. 청량하다고 알려져 있다. 숲속 작은 웅달샘이다. 들머리에서 40분정도 걸으면 만날 수 있다. 이름처럼 약수가 솟는 샘도 3개다. 맛이 각각 다르다. 철분의 함량이 달라 생긴 맛의 차이라고 한다.

약수가 시원하게 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울긋불긋 단풍들이 눈에 들어온다. 단풍이 조용히 말을 걸어온다.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데르 푸슈킨(Aleksandr Pushkin)의 시를 읊어준다. 인생은 한없이 슬픈 날만 이어질 것 같아도



송어회

언젠가는 기쁜 날이 오고야 만다는 진리가 새삼 떠오른다.

삼봉휴양림 들머리에 있는 ‘통나무산장(033-435-2829)’도 명물이다. 이 집은 숙박을 겸하는 음식점이다. 삼봉약수로 백숙을 끓인다. 물은 요리에서 중요한 요소다. 밥을 지을 때 물의 양과 질은 맛을 결정한다. 된장이나 간장도 물이 좋은 동네에서 만든 것은 남다르다. ‘통나무산장’의 주인 신교봉(48세) 씨는 매일 왕복 1시간 30분을 걸어 약수를 떠온다. 닭은 직접 키운 토종닭들이다. 산장 옆에 양계장이 있다. 각종 채소들도 직접 재배한다. 알싸한 곰취장아찌는 밥 한 공기를 푹푹 해치우게 만든다. 이 집 백숙의 매력은 닭의 간과 닭똥집과 닭발이다. 신씨는 “우리 집은 바로 잡아서 만들기 때문에 내장이 신선하죠”라고 말한다. 폭 삶은 간은 고소하고 닭발은 부드러워. 11년 전에 문을 연 ‘통나무산장’은 매년 찾는 이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가을하면 노란은행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삼봉휴양림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은행나무 숲이 있다. 숲은 이름이 없다. 그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695-1번지’라는 주소만 있다. 이 숲은 1,300평 정도의 너른 땅에 2,000그루 이상의 은행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다. 개인 소유의 숲이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오는 10월말까지만 문을 연다고 한다. 내년엔 다시 은행나무를 볼

수 있을지 알 수는 없다. 여행객들과 사진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난 곳이다. 어쩌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

삼봉휴양림에서 구룡령으로 방향을 잡으면 산등성이를 가득 메운 붉은 단풍 때문에 깜짝 놀란다. 여행객들은 너도나도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쉬면서 경치를 구경한다. 자동차 소음이 산뜻한 산바람에 묻힌다.

구룡령을 지나 인제군에 들어서면 방태산자연휴양림(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과 방동약수가 있다. 방태산자연휴양림도 휴양관과 야영장이 있다. 1997년 개장해 해마다 찾는 이들이 많다. 소나무·박달나무·참나무·피나무 등 천연림과 낙엽송

들이 가득하다. 선홍빛의 단풍들이 친구처럼 기다리고 있다. 휴양림에서 내려와 방동약수에 도착하면 청량한 약수가 반갑게 맞이한다. 방동약수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물통을 하나씩 들고 줄을 선다. 아침을 깨끗하게 열어준다.



방동약수

방동약수에서 곰배령으로 4킬로미터 정도 달리면 ‘진동 두무대식당(033-463-1020)’이 있다. 산나물로 등산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진동산 채집’을 지나야 보인다. 이집은 송어횃집이다. 횃집 안에 송어양식장이 있다. 송어는 그 맛과 향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즐긴 횃수만큼 맛을 알 수 있는 음식이다. 16년째 이곳에서 송어요리를 하고 있는 이상해 씨는 “우리 송어는 쫄깃하고 신선하다. 진동계곡 물을 끌어와 쓰고 한 동이 100평이 될 정도 넓다”고 자랑을 한다. 너른 곳에서 송어들이 마음껏 헤엄치다 보니 맛이 특별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하면 막국수다, 방동약수로 향하는 길에 ‘방동막국수(033-461-0419)’가 있다. 메밀의 함량이 높아 맛이 담백하다.

자연은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준다.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만한 명약도 없다. 이 가을 가족을 품에 안고 길을 나서보자. ☆



# 순천, 그곳에 가보시라!

쌀랑하니 찬바람이 분다. 감기 조심하느라 목욕탕에도 가지 못했다. 집에서 샤워하고, 머리를 잘 말리고 출근길에 나섰다. 공원 옆에 주차해놓았더니, 소나무 낙엽이 원도우 브러시 밑으로 제법 쌓였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뉴스시간에도 당뇨·고혈압 환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는 엄마께 “온천여행을 취소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다. 엄마는 친구 분들과 수안보온천에 가서 1박2일하고 오신단다. 수안보에서 한때 사셨던 친구 분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다셨다. 다 좋은 애긴데, 워낙 천식기가 있어서 감기만 걸렸다 하면 심한 기침으로 고생하셔야 되니까.

작년 겨울 내내 주3회 이비인후과에 출석도장 받으러 다니셨다. 걷기에도, 차를 타고 가기도 애매한 거리인지라 누군가가 모셔가고 오는 수발을 들어야 했다. 아침시간 1시간가량이 후딱 지나갔다. 그렇게 한번 혼나시더니만, 날이 추워지니 이것저것 알아서 취소하고 집에만 계신다.

목욕탕에서 만난 어느 어르신 말씀 “애들이 어려선 식구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무슨 탈은 없나? 별일 없나? 밤중이 되면 여직 왜 안 들어오나 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우리가 나이 드니까 이젠 어디를 가게 되면 자식들이 거꾸로 우리 걱정을 하더라 말이지. 무사히 여행 마치고 올 때까지 애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니까 그저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사는 것도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해.” 맞는 말씀이다. 나도 엄마가 외출하시면 휴대폰으로 어디쯤 계시는지, 누구랑 시장 가셨는지, 무얼 타고 오실 건지 잔소리해대듯 계속 전화를 한다.



〈시골밥상〉을 찍으러 순천에 갔을 때, 밥상 다 차리고 나서 순천만 한번 둘러보고 가자고 했다. 팀 원이 찬성해서 숙소로 가기 전 순천만으로 향했는데, 너무 큰 주차장에다 밀리는 인파 속에서 낮이 나갔다. 그래도 좋았다. 내 친구 남편은 비행기만 35년 탔는데, 흔히들 세상구경도 하고 월급도 받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한단다. 그러나 사실, 세상구경은커녕 세계 곳곳의 공항만 원없이 다닌단다. 공항만!(그이의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며 세상 여기저기 다녀, 노래 불러, 돈 벌어 얼마나 좋으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저기 구경 다닐 수가 없다. 세상의 무대 뒤만 보고 다니기 때문이다.

공연이나 촬영 때문에 서울을 떠나 휘이휘이 다른 데 가도 그냥 공연하고, 촬영 끝나면 곧장 집에 온다. 바깥풍경을 보고 다닐 수가 없다. 일하러 갔으니 일하고 온다. 보통사람들의 출장처럼 역전풍경, 공항의 느낌은 거리거리를 차타고 지나가긴 하지만 획 스킬 뿐이다. 마음의 여유도 그렇게 없을 뿐더러 실제로 시간이 조금도 안 난다. 나는 가끔 한걸음 뒤쳐져서 두루 구경하고 어슬렁거리며 걷고 싶었다. 정말정말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다. 왜 못 하는가? 차 시간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안 나서? 사람들 틈에서 구경거리가 되기 싫어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는 사실은 57세 넘어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린 사람들에게 떠밀리듯이 걸었다. 낙조가 예쁘다는데, 지는 해를 잘 못 봤다. 갈대도 덜 피었다. 하지만 좋았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을 내서 꼭 하고 싶은 일은 해보고 살고 싶다. 하여튼 순천만 좋았다. 순천의 보통 음식점 맛도, 인심도 좋았다. 순천, 그곳에 가보시라! 갈대밭의 낙조를 마음의 눈으로 꼭! 도장 찍고 오시라. ☆



# 아내의 애인

얼마 전, 친하게 지내는 부부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부부가 “갓 제대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그저 친구일 뿐인데도 마치 머느릿감이 오는 듯해서 긴장되고, 약간 흥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 찾아온 날 생선을 발라서 먹기 좋게 권했다나 뭐라나!

여하튼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한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뭐라도 딱 꼬집어 표현하기 힘들었다. 긴장감이야 아들의 여자친구가 훨씬 더했겠지만 낯선 여인(?)과의 첫 대면은 부모들에게도 기분 나쁘지 않은 약간의 긴장을 주는가 보다.

우리 아들은 나를 닮았다. 여자친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혹시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 있냐?” 하고 물으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뭘 그런 걸 묻냐’ 하는 표정을 지어서 나를 어색하게 하곤 했다.

지난 날, 나도 그랬다. 이성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순진했는지 모르겠다.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말 그대로 쿨(cool)하게 여자친구들은 만나지 못했다. 만나는 것, 즉 데이트는 곧 결혼이라는 강박관념에 싸여 있었던 것 같다. 후회되는 일이고, 내 아들은 그런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내 아들인 게 분명한지 젊은 날의 나와 비슷한 성격인 모양이다.

아들녀석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얼굴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 바쁘다. 공부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한번쯤 야단 좀 칠까 하다가도 ‘그래, 그렇게 애썼는데 마음껏 놀아라’ 하는

마음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인생의 공부려니 하는 너그러움도 생겼다.

얼마 전, 아들녀석 휴대폰에 못 보던 사진이 언뜻 비춰졌다. 여자친구? 동물적(?)인 감각이 한 곳에 모이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는 말인 듯 물었다. “여친이냐?” 아들의 대답이 나온 것은 내가 생각하고 기다리려던 4~5초보다 훨씬 빠른, 이른바 ‘즉답’이었다. “네!” 순간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난감했다. 관심을 보이기도 그렇고, 무관심하게 보이기도 그렇고, ‘babo 같은 미소만 짓네’ 라는 가사처럼 딱 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를 찾아 얼른 일러바치고 은근히 내막을 알아보라고 바람을 잡았다. 물론 아내는 나보다 수십 배 더 흥분하는 것 같다. 지금 가서 물어보면 아들녀석이 예민하게 반응할지 모르다면서 서서히 알아보겠다.

‘급해 죽겠구만...’

대학교 1학년,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만난 여자친구가 결혼까지 갈 확률도 크지 않고, 결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어 한동안 아들의 결혼에 관하여 소설을 쓰고 말았다. 생각해보니 정말로 결혼할 상대의 아가씨를 데려와 인사시키다면 얼마나 속으로 난리를 칠까 싶어 혼자 실없이 웃고 말았다.

아들의 애인. 내가 왜 열병 걸린 사람처럼 들떠서 가라앉질 않을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킬 일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니, 인사를 한다고 뭐 이상할 것 같지도 않고... 첫사랑에 빠진 아들만큼 우리도 기분 좋은 열병을 앓고 있다. ☆





## 삶의 풍경을 바꾸 주는



날이 추워져 요즘엔 볼 수 없는 풍경이 돼버렸지만, 양말 신고 샌들 신은 아저씨의 모습이 제 눈엔 정말 '짱'입니다. 날렵한 샌들 사이로 흰색이나 회색 양말이 드문드문 보이는 패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풍경이죠.

〈여성시대〉 조연출을 맡게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우연히 방송중에 이 '양말 샌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착한 문자 중에는 '우리 남편은 여름에 꼭 반바지에 양말 좋아리까지 올려 신고 샌들을 신어서 난 좀 떨어져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중에 이런 문자 내용도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반바지에 꼭 발가락 양말을 신어요.' 맙소사, 그야말로 최악의 아저씨 패션 아닌가요? 한바탕 크게 웃고 지나갈 뻔했어요.

아저씨들의 향변을 담은 문자가 속속들이 도착하더군요. '어쩔, 양말 안 신고 샌들 신으면 발 냄새가 엄청 독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요', '되도록 양말을 신는 게 발 건강에 좋습니다' 등. 아, 그랬군요. 아저씨들에게는 그런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던 말이지요. 괜히 머쓱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여성시대〉 문자함을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평생 아저씨들의 양말 샌들 패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았을 거라 생각하니, 어쩐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요. 아저씨들의 이런 사소한 패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무슨 인생에 큰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반응이 모여서 나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뭉쳐지면 결국 인생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쩐지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이 자

꾸 쌓여갑니다. 어렸을 적 매일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늘려갔던 걸 떠올려보면, 이진 좀 씩씩한 일입니다. 이진 이래서 싫고, 저진 저래서 싫고. 그래서 두 번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 작은 물건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잘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두고 싫어하는 것들의 목록이 무한정 늘어가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는 있겠지요. 굳이 찬찬히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들과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은 저절로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절약도 절약 나름이죠.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고집스러운 내 모습, 고집불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 겁니다.

사방팔방 오지랖을 넓혀놓고 피곤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호기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이가 든다면 인생에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의 눈망울을 한 어르신을 뵈게 될 때가 있죠. 대개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고, 대뜸 참견이나 썬 잔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두루두루 살펴보고 결정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어르신과의 대화는 지루한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길어질수록 재미가 있죠. 나이 들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신 분들입니다.

작은 태도 하나가 삶의 풍경을 바꾸주는 썬이지요. 어쨌면, 현명한 〈여성시대〉 청취자분들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날씨, 어제 겪은 황당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사 이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경증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빛깔의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한 어르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두말 할 것 없이 재미있고, 소중한 시간이지요.

덮어두고 질색했던 '양말 샌들' 패션을 떠올리다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읽다가' 든 생각들, 이곳에서 나누겠습니다. ☆



## 연산군 부인 신씨

연산군 부인 신씨는 폐비 신씨(愼氏)로 불린다. 연산군이 폐출되면서 그녀 역시 쫓겨났기 때문이다. 거창부원군 신승선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신씨는 만 열두 살 때인 성종 19년(1488) 세자 연산군과 가례를 치렀다.

역사상 가장 황음한 것으로 기록된 연산군의 부인으로 사는 것은 어떠했을까? 《연산군일기》 9년(1503) 6월 13일자는 “왕이 미행(微行)하면서 환관 5, 6인에게 몽둥이를 쥐어주어 정업원(淨業院)으로 달려가 늙고 추한 비구니를 내쫓고 연소하고 자색있는 7, 8인만 남게 해 간음하니 이것이 왕이 색욕을 마음대로 한 시초이다”라고 적고 있다. 머리 깎은 여승을 좋아하는 변태성욕자처럼 묘사하고 있다. 《중종실록》은 “(연산군이)처음 전전비·장녹수를 들여놓으면서부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었고, 미모가 빼어난 창기를 궁안으로 뽑아 들인 것이 처음에는 백으로 셀 정도였으나, 마침내는 천으로 헤아리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연산군이 1,000여 명의 후궁을 거느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산군 부부의 사이는 어떠했을까? 《연산군일기》에 따르면 연산군이 한창 황음에 젖어 갈등에 있어야 할 할 재위 11년(1505) 8월 연산군은 뜻밖의 조치를 내린다. 연산군은 “왕비 신씨는 현숙하고 부드럽고 가상하여 부덕(婦德)을 갖추 지니되 오래도록 게을리하지 않고 끝내 더욱 삼가서… 인애(仁愛)를 펴니… 부도(婦道)를 권장하여 마땅하다”라고 칭찬하면서 제인원덕왕비(齊仁元德王妃)라는 존호를 더했다. 이날 연산군은 “지금 세상의 부부가 서로 어감을 한탄하고, 군자에 짝하기가 더욱 어렵다”면서 신씨를 극구 추켜올렸다. 이런 말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강화도 교동의 연산군 유배지에 있는 강화부군당의 연산군 부부상.



연산군 부부는 실제 사이가 좋았다. 다만 연산군을 쫓아낸 신하들이 자신들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산군을 황음무도한 인물로 그려놓은 것이다. 연산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귀양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황음무도하지는 않았다. 중종 1년 9월 7일 연산군을 강화 교동에 안치하고 온 심순경(沈順徑) 등은 “(연산군이)울타리 안에 들어가자 시녀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하직을 고하니, ‘나 때문에 먼 길을 고생했으니 고맙다’라고 치하했습니다”라고 중종에게 보고했다. 약 20일쯤 지난 후 중종 정권은 연산군의 네 아들인 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및 이돈수(李敦壽) 등을 모두 죽여버렸다. 세자와 창녕대군은 왕비 신씨 소생이고, 양평군과 이돈수는 후궁 조씨 소생이었다. 세자가 열살이었으니 나머지 동생들은 더 어렸을 것이다.

연산군 부부의 사이가 좋았다는 것은 《소문쇄록》의 다음 기사로도 확인된다. 연산군이 교동으로 쫓겨난 후 신씨는 “그때에 여러 대장에게 청해서 귀양간 곳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고 말했다. 연산군은 쫓겨난 지 두 달쯤 후인 중종 1년(1506) 11월 6일 사망하는데 독살혐의가 짙다. 교동 수직장 김양필과 군관 구세장(具世璋)이 연산군의 죽음을 보고하면서,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가 보고 싶다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귀양갔을 때 신씨의 반응과 죽을 때 연산군의 마지막 말은 두 부부의 사이를 잘 말해준다.

신씨는 연산군이 죽은 후에도 31년을 더 살다가 만 61세 때인 중종 32년(1537) 4월 8일 사망했다. 환감은 지냈지만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남편과 자식은 물론 친정아버지까지 중종정권에 잃었기 때문이다. ☆